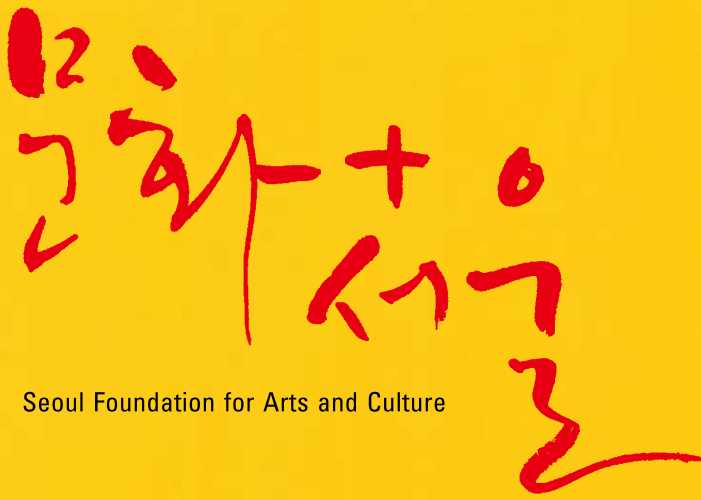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미련이 가어서



2011 12



서울문화재단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12. vol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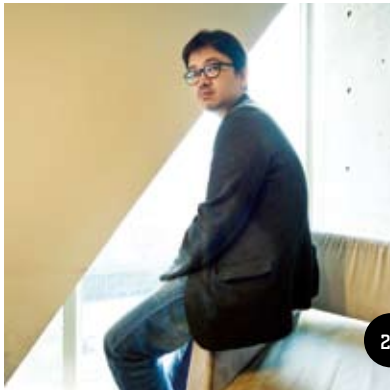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아름다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12



20



25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작가, 조장은

12월의 문화+서울 | 문화나눔이 뜬다

- 04 문화예술과 사회공헌, 더불어 함께 가다!
- 06 행복한 예술생태계를 꿈꾸며
- 08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12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문화나눔의 사례들
- 16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

- 20 문화인 사진작가 이갑철
- 26 영 아티스트 <돼지의 왕> 연상호 감독
- 32 나의 서울 생활기 교수 & 배우, 매튜 슬라이트
- 36 서울 단상 개그맨 임혁필, 종로의 극장을 추억하다

지금 서울은

- 38 이슈 1 예술 × 산업 =!
- 42 이슈 2 연말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연, 전시, 축제 리스트
- 44 연재 문화예술과 SNS ① 소셜미디어, 문화예술계를 뒤흔들다
- 48 이미지 서울 다시, 청춘
- 50 이달의 평론 재앙에 직면하는 네 개의 도시
서울시립미술관 <시티넷 아시아 2011>전
- 54 리뷰 1 올해의 대한민국 무엇을 이야기할까, 2011 문화예술 뉴스 베스트 10
- 58 리뷰 2 여전히 막막한 그들의 향해, 연극 <해무>
- 60 리뷰 3 연희문학창작촌 낭독극장 <詩, 市, 시민들> & 일마 라쿠자 초청 낭독회

서울 너머로

- 62 해외 트렌드 뉴욕 맨해튼의 주목받는 한식 레스토랑 & 젊은 셰프들
- 64 해외 뉴스 베를린

문화@서울

- 66 좌충우돌 문화 체험 신당창작아카데미드 프로젝트 살림 <2011.12.24. Dinner>
- 70 MUST 7 12월의 문화 소식
- 72 문화 캘린더
- 75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11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t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이달의 표지 작가

조장은

청춘의 일상 엿보기



그림일기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일기를 썼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림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그때처럼 솔직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좋았던 일, 부끄러웠던 일 등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당시의 감정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일기를 만든다.

한국화를 전공했는데,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화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보통 동양화라고 하면 수묵화를 떠올리는데, 동양화에도 강렬하고 예쁜 색이 많이 쓰인다. 평소 작업할 때 전통 한지와 전통 채색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의 내용이 현대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통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작품을 보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본인 이야기인가? 아이 디어나 모티브는 주로 어디서 얻나? 주로 경험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사용한다. 느껴보지 않은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 다른 사람도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야 보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테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책을 내고 광고 작업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시장은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 많은 이를 만나기는 어렵다. 갖춰진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지금은 치과와 갤러리가 함께 있는 사랑방 같은 문화공간, 갤러리 예이랑에서 〈So long, my 20's〉라는 전시를 진행 중이다.

● 2010 서울문화재단 시각창작활성화 기획프로젝트지원 〈후인마이의 편지-후천적 한국인을 위한 그림 소설〉 참여작가.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지금까지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산사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서로 그림일기를 엮은 〈글 때리는 스물다섯〉, 어머니 여행내의 에세이와 자신의 그림을 담은 〈엄마라서 예쁘지〉가 있다.



1 〈미련이 길어서〉, 장지에 채색, 108.5×126cm, 2009

미련은 버리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한없이 이어지고 눈에 밟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 그것은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미련일 수도,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한 미련일 수도 있다.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미련'의 주체는 달라진다.

2 〈그대의 행복 나의 행복〉, 장지에 채색, 72.5×72.5cm, 2011

3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이〉, 장지에 채색, 53×45.5cm, 2011



가을
 10월
 10월
 10월





문화예술과 사회공헌,

더불어 함께 가다!

문화나눔이
든다

문화예술은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분야다? 문화예술에 대해 아직도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다면, 당신은 시대감각과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 여러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기부이고 지원이라는 사실은 더욱 매력적이다. 예술적인 재능과 착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완성되는 문화나눔의 세계. 그 아름다운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본다.



1

행복한 예술생태계를 꿈꾸며

문화나눔과 문화정책
들여다보기

● ‘문화나눔’이라는 용어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무렵이다. 그리고 변화가 빠른 우리 문화예술계의 흐름을 반영하듯, 문화나눔은 불과 몇 년 새에 문화정책 전반을 이끌어가는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나눔의 확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먼저 ‘나눔’이라는 용어가 기부, 혹은 지원과 달리 우월한 주체에 의해 베풀어지는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등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유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나눔의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의 위상 변화다.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은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나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주체로 바라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문화예술도 다른 영역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문화나눔 정책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00년 중반 무렵 시작되었다. 당시 국내 문화정책 환경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다. 바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나눔이었다. 이 두 정책은 이전의 문화정책이 주로 예술가와 예술조직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수요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전의 문화정책이 막연하게 선언적 문화복지를 내세운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수요자 중심 정책은 이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경제력, 학력, 거주지역, 연령 등에서 우위에 있는 한정된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전환은 이른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논쟁과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1983년 프랑스 문화부의 연구조사부장 오귀스탱 지라르는 유네스코의 의뢰로 〈문화발전: 경험과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까

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화의 민주화라는 문화정책의 목표가 이제는 문화 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의 민주화는 클래식, 발레, 순수미술 등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양을 기르려는 이유와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소요된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됐다는 점이었다. 반면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들이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문화의 민주화가 전문가와 이들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에 주목하였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아마추어와 이들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문화의 민주화가 전문가에 대한 문화정책과 고급문화의 확산에만 주목하는 점을 비판하며, 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원성과 탈중앙화, 그리고 일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다양한 문화소외층의 하위문화가 그 고유의 가치를 표현하고 스스로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가, 문화나눔의 주체가 되다

이 같은 문화정책의 이념과 지향점에 대한 논쟁이 국내에서 현실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와 복권기금의 전입 등 문화재정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문화나눔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크게 확대됐다. 그중에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전통나눔, 문화나눔 등 일련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 소외지역 순회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화나눔 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예술가와 예술조직이 문화나눔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나눔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등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금전적 자원만을 고려하여 공공재원을 가진 정부와 상업자본을 가진 기업을 지원의 주체로 파악했다. 하지만 예술가와 예술조직은 다른 사회주체들이 갖지 못한 문화예술이라는 자원을 가짐으로 인해 나눔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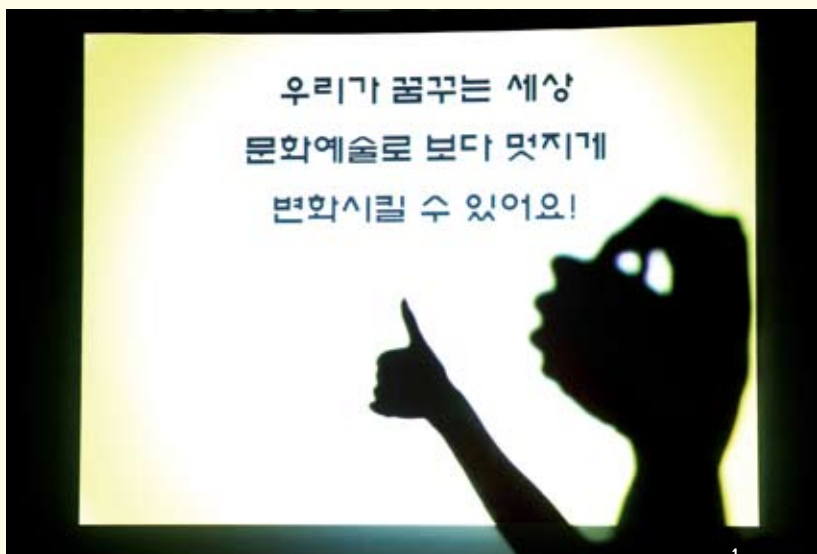
- 1 문화나눔이 문화정책의 화두가 되면서, 예술가와 예술조직이 우리 사회 나눔의 주체로 등장했다. 사진은 문화나눔 행복서울.
- 2 착한그물 사업을 통해 문화정책의 수혜자들이 다시 문화 소외계층에 재능을 나눈다.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는 부산 전역 3,000여 명의 재가복지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착한그물’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자발적 문화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하여 예술가들이 재능나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독거노인 가정을 성악가가 찾아가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미니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집밖으로 거의 나가본 적 없는 장애인의 집을 예술가가 방문해 악기를 강습해주기도 한다. 때로는 노인의 오래된 추억을 한 편의 단편소설로 만들어주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선물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 예술가 대부분이 부산시가 추진해온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 ‘또따또가’ 등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나 기관의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재능나눔의 형태로 자신이 받은 혜택을 나눔으로써 예술생태계 내에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문화나눔은 예술가와 예술조직에게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었다. 일반적인 지원과 기부는 돈만 있으면 되지만 문화나눔은 예술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모두가 즐겁게 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때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문화나눔 시대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마케팅계의 석학 필립 코틀러는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혼’(Human Spirit)을 가진 시장참여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시대, 싸고 질 좋은 물건만 찾던 고객이 변했다. 같은 값이라면 소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사회공헌을 해야 할까? 간단하다. 고객이 원하니까.

기업이 다시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하기 쉽지 않다. 이때 좋은 사례와 시도해볼 법한 아이টে에 관해 논의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등장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나 미국 월트디즈니의 사례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파급력과 임팩트,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남다른 생각과 감수성이 중시되면서 창의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각광받고 있다.

이른바 문화산업의 시대라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은 새로운 통합의 경향을 보인다. 이전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집중되었다면, 보다 상위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점

차 그 체질을 개선해나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복지, 교육, 환경, 공간, 그리고 사람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전통적인 메세나 활동은 물론, 품격 있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문화마케팅 측면에서의 사회공헌활동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예술가, 공공영역, 지원기관의 사회공헌

예술가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분야는 공공미술이다. 공공미술이란 쉽게 말해 도시의 공원에 있는 조각이나 벽화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의 존 윌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소수 전문가들의 독점적인 예술향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장소를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화·정치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여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공동작업 등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비단 공공미술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각, 공연,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대중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표현양식으로의 변화, 기부를 통한



후학 양성,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공공에 기여하는 예술가의 롤 모델을 보여준다.

공공영역과 지원기관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는 2004년 '한국메세나협의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Arts for Children', '기업과 예술의 만남' 등 기업·문화예술 지원단체와 연계해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왔다. 반면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한데 묶어 조명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서울문화재단이 사회공헌 전문 컨설팅 기관인 라임글로벌과 공동 개최한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세미나는 새로운 실험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및 홍보마케팅 담당자,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00여 명이 운집한 자리에서 기업과 예술가, 지원기관이 각각의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공헌전략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해 조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전까지의 논의들은 주로 문화마케팅이라는 키워드 하에 문화예술 콘텐츠와 방법론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및 지원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문화나눔, 그래도 새롭다

인터넷에서 문화나눔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기부문화 일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문화예술을 조금이나마 활용하여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에는 어디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예술 분야로 엄격하게 한정한다면, 얼마 전 영화화되기도 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재단 엘 시스템아,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서울문화재단의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 KBS 재능기부 봉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래에는 사회봉사와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예술 재능을 활용한 문화나눔 활동이

- 1 2009년 열린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세미나. 오프닝 공연으로 매직플레이의 그림자쇼가 펼쳐졌다.
- 2·3 예술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공공미술, 시각, 공연,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사진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마을 가꾸기 사업.





1

문화나눔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굳이 정의해보자면, 문화와 복지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성처럼 진행되던 기존의 복지정책과 예술지원정책은 새롭지 않지만, 그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광받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 문화통화나 서울복지재단의 S-Money처럼 문화나눔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나눔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굳이 정의해보자면, 문화와 복지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성처럼 진행되던 기존의 복지정책과 예술지원정책은 새롭지 않지만, 그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나눔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문화나눔,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예술지원박람회 크리에이티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금성에서 온 예술가의 화성에서 온 기업이 만나기'라는 초청 강좌로 시작된 포럼에서는 공공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나눔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로서 문화나눔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 영역인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이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의 문화나눔은 예술지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예술가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지원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매개의 장,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된 기업의 메세나 활동 역시 이러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기업이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과 예술인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한 문화나눔 확산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수성과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들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냉철하게 고민하는 기업인



2

- 1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세미나. 배우 조재현의 발표 모습.
- 2 지난해 열린 서울예술자원박람회 크리에이티브 포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문화나눔 사례 발표와 연계해 공연도 펼쳐졌다.
- 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3

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제도적인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오늘과 내일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할 또한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일컫는다.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공공의 지원정책이 시민사회 및 시장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011년부터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 우수 사업모델 육성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하자센터와 공동 주최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 & 포럼 2011'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이를 준비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파트너를 찾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문

화예술 사회적기업 모의투자 마켓'과 '네트워킹 포럼'의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모의투자 마켓은 총 4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쇼 케이스 공연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모의투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실험이었다. 총 500명의 엔젤 투자자들이 가상 투자금을 들고 각각의 사회적기업을 응원하는 광경은 행사 전 사회자가 밝힌 대로 "꿈을 품은 나비들이 생명의 수술을 펴뜨리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이어서 진행된 네트워킹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투자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가치투자가 무엇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후원 유치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록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투자의 모습을 공유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SROI) 등 사회공헌활동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은 문화영역을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창립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등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이 희망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문화나눔의 사례들

●
고단한 부모의 어깨 너머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아이는 어렵듯이 깨닫는다. 동네는 조용해지고 골목은 가라앉았다. 이러한 문화의 사각지대에 문화예술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재개발 지역 아이들에게 후원금 대신 붓과 바이올린을 쥐어주고,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힌다. 문화예술이라는 촉촉한 그물망이 온 세상을 희망으로 엮어낸다.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문화교육,
문화가 있는 놀이터 & 신당창작아케이드
‘골목, 누빔’ 프로젝트

7년 전 시작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놀이터를 상상력과 창의력 넘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동물원 놀이터, 고래의 꿈, 거꾸로 놀이터 등 현재까지 23개의 놀이터 디자인을 완성해 총 46개소에 시공을 완료했다. 각각의 놀이터에 맞는 연극놀이 프로그램까지 개발,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디자인해 새로운 공공미술의 한 예로 자리 잡았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의 협력 기업인 (주)유니온랜드의 기부로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한강 여의도 지구에서 놀이터를 운영하였고 종료 후 이든아이빌(전 화성영아원)에 놀이터 4점을 기부했다.

골동품으로 유명한 황학동 중앙시장은 한때 도시 유랑민들의 자연발생적 거처였으나 지금은 청계천 복원과 재개발로



- 1 재능 있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예술교육 지원 프로젝트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 2 황학동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골목, 누빔'.
- 3 빈민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템아'.



잊혀지고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와 지역 아이들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골목, 누빔'은 이러한 시장을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프로젝트다.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골동품 아저씨와 재봉가게 아주머니를 만난 아이들은 그들에게서 옛 황학동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으며, 도자와 유리작업을 통해 어두컴컴한 골목길과 낡은 담장을 예쁜 벽으로 꾸몄다. 미술 교육과 동시에 문화 나눔의 주체로 소속감을 부여해 황학동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목, 누빔'의 목표다.

한국의 엘 시스템아, 예술로 희망드림

빈민가 마을에서 태어난 구스타보 두다멜을 LA 필하모닉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로 키우고, 마약에 빠져 있던 에디슨 루이스를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연소 더블베이스 주자로 만든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 1975년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는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시작된 빈민층 음악교육 프로그램. 그 결과 한때 총과 마약이 들려 있던 아이들의 손에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쥐어졌고, 약 30만 명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문화재단에서 2년 전 시작한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예술교육 지원 프로젝트다. 월 10만 원 이내로 교육비를 제공하는 '씨앗 나눔',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는 '꿈나무 키움', 학비 및 콩쿠르 참가비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특히 '꿈나무 키움' 분야에서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현업 예술가 멘토와 관계를 맺어준다. '예



술로 희망드림'에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멘토들은 '꿈나무 키움' 청소년들과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이어간다.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는, 경제적 위화감 없는 일대일 집중교육의 기회와 함께 예술 현장과 예술가에 대한 소중한 경험 또한 제공받게 된다.

"신문배달이라도 해서 발레를 배우겠다"던 세영이(예명)는 왕복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혼자 오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 그리고 올해 초 예원예술중학교 입학으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비싼 학비와 발레복 구입 등의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예술로 희망드림'을 만났다. 인재육성 분야에 선정되어 앞으로 1년간은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펼쳐가게 된 세영이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예술로 희망드림'의 목표는 아이들이 좌절보다 희망을 먼저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예술과 희망으로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 1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나눔 행복서울'
- 2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과 함께 아름답게 변신한 연남지하보도.
- 3 서울문화재단의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

일상이 예술,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아트

최근 2~3년 사이 지역 주민의 삶을 예술과 연계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유행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지역 주민 79명이 직접 벽화를 그린 마포구의 연남지하보도를 들 수 있는데, '연남동 속 자신'이라는 주제의 그림 타일로 어두컴컴한 무채색 굴다리를 알록달록하게 변신시켰다. 식당 아주머니, 자영업자, 세탁소 주인 등 평생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 없던 주민들이 모두 화가가 된 것. 기사식당 밀집지역으로 유명한 이곳이 최근 예술 동네로 변모한 것은 집값 비싼 홍대에서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특히 10년째 홍대 앞에서 프리마켓을 운영 중인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연남동주민센터와 함께 예술아카데미를 열어 밥그릇을 빛고, 동네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일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홍대를 떠난 또 다른 예술가들은 문래동 철공소 골목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쇠를 두드리고 철근을 자르는 소리가 가득했던 이 지역을 알록달록한 벽화와 푸른 텃밭이 자리한 동네로 변신시켰다. 문래 도시텃밭 공동체 입주 작가들은 철공소 사장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함께 흙을 나르고 벽화를 그리며 텃밭을 가꾸었다. 달동네 철거를 앞두고 지역 예술가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해 동네를 지켜낸 통영 동피랑 마을 이후로, 마을 벽화 등 공공미술을 관광지화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문래동에 정착한 예술가들은 마구잡이 개발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풍경과 추억을 담은 사진을 모아 <백투

더퓨처>라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문래동에 거주하는 작가들로부터 직접 카메라 조작법을 배워 사진을 촬영했다. 일상은 예술이 되고, 주민은 예술가가 되었다.

좁고 복잡했던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 복도는 이제 더 이상 어수선하지 않다. 적재된 물건으로 인해 걷기 불편했던 복도는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 대신 예쁜 아트 벤치가 자리한다. 복도 벽에는 물고기 타일과 주인아저씨 내외의 팝아트 사진을, 가스관에는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 넣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작가들이 상인들과 상의해 장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게 물품을 디자인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



마포구연남지하보도 ©





3

돈이 없어도 기부하는 할 수 있다. '천원의 행복',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했던 서울시가 올해는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문화나눔 행복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심의 광장과 숲, 공원, 거리, 생태하천 등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곳들을 열린예술극장으로 지정했다.

은 직접 모델이 되고 그림을 그렸다. 생선을 손질할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본을 뜨고, 회갈 대신 연필을 들고 글씨를 쓰는 주민들. 비록 서툰 솜씨지만 삶의 터전을 스스로 꾸몄다.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북구 장위시장 역시 황학동 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손길이 닿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장위시장 탐험에 나선 아이들은 가장 오래된 가게는 어디인지, 간판이 없는 가게에 어떻게 간판을 만들지를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장위시장을 각인한다. 그렇게 아이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살아온 오래된 동네의 가치를 어슴푸레 깨닫고, 시장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쉰다.

문화적 공핍을 깨부수는 재능 기부자들

돈이 없어도 기부하는 할 수 있다. '천원의 행복',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했던 서울시가 올해는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문화나눔 행복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심의 광장과 숲, 공원, 거리, 생태하천 등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곳들을 열린예술극장으로

지정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움직이기 힘든 이들과 동행하는 문화나들이 봉사단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를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30인 이하 소규모 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계층을 포용했다. 재능나눔 봉사단은 동네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펼쳤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해 촘촘한 문화 그물망을 만든 것이다.

초등학생도 트위터를 운영하는 SNS 시대에도 여전히 책이 선물하는 미래는 무척이나 밝다. 서울문화재단의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은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와 음악, 영화, 인문학과 독서를 결합시킨 '책으로 만나다',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운영되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독서토론 리더 그룹이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찾아가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를 밝게 변화시키는 민간단체도 많다. 빛소리오페라는 산간지역의 공장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스타키 코리아는 서울튜티앙상블과 결연을 맺어 한 달에 한 번 장애우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열고 있다.



1

기업이 예술을 만났을 때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 얼마 전 금요일 점심시간.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에서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평소엔 막히지 않던 길이 막혀 의아했다.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밖을 바라보니 한 회사의 건물 앞에 많은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익숙한 목소리와 노래가사가 들려왔다.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날 참아준 그대...”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라는 노래였다. 많은 사람들이 물린 이유는 그 음악소리가 바로 진짜 유리상자의 라이브 무대였기 때문이었다. 한화그룹에서 매주 개최하는 ‘금요 정오음악회’라는 행사였던 것이다. 웬만한 기수의 콘서트나 볼 만한 공연들은 티켓이 비싸거나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러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소간의 차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대중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이러한 문화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문화예술에 주목하다

한 경제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한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0.2~0.3% 정도를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면 기업이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등의 공익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영역과 장학지원 등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예술로 관심을 돌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이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 1·2 인디밴드의 공연, 신인작가의 전시, 각종 문화 강좌가 연중 진행되는 KT&G 상상마당.
3 소외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림산업의 꿈나무 예술여행

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 지원은 사회복지 영역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문화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문화예술의 창조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이미지를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한데 서로 간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었다. 기업 사회공헌의 전통적인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과 구호성금, 그리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생색'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생색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의 일부로서 인식되면서 기업의 가치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생겨났다. 그러한 면에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주목하는 마지막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 자체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

반적인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과거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또 다른 측면은 예술 자체의 공익적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한 엘 시스템아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문화예술의 효용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들은 예술을 통해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 기업의 내부 임직원들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KT&G 상상마당

KT&G는 문화예술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2005년 문화 커뮤니티 '상상마당'을 오픈했다. 2011년에는 논산 지역에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열기도 했다. 상상마당은 단순히 전시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상마당에서는 지금도 저예산 국내 영화가 상영되며 인디밴드의 공연, 신인작가의 전시회가 이어진다. 이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 한국메세나협회

예술 영재 발굴과 예술인 양성을 지원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에는 그룹의 가장 기본 기저에 ‘아름다운기업 7대 실천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지원이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금호아시아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은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라는 슬로건하에 국내 예술 꿈나무들을 지원한다. 예술 영재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양성한 예술인에 대해 음반제작 및 공연까지 지원하는 통합적인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외아동을 위한 꿈나무 예술여행,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2007년부터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전시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 예절까지 몸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꿈나무 예술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평상시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가 적은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외아동들이다.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미술 전시회,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매년 500여 명의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후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이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의외로 많지 않다.

예술을 통한 치료와 회복,

한화그룹의 예술더하기

한화그룹은 2009년부터 전국 45개 아동복지시설 9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악, 미술, 연극, 음악 장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문 예술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더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의 우울증 감소와 창의성 증대 같은 치료 효과도 이끌어내고 있다. 문화예술의 교육적 효용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예술로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GS칼텍스의 예술마루 조성사업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여수에서는 지금 바닷가를 전망으로 한 문화예술관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바로 GS칼텍스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예술마루다. 여수의 대표 기업인 GS칼텍스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 한국메세나협회의



2



© 한국메세나협회의

3

건설을 선택했다. GS칼텍스는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로 SK그룹은 10년간 1,02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울산대공원을 울산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문화 지원은 지역사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문화나눔의 확산을 꿈꾼다

기업들의 문화예술 기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그럼에도 아직 복지나 교육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소극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기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문화예술에 기부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사회공헌 확대에는 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 예술계 또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나눔 또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최근 예술계에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5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문화예술 나눔단'을 발족하기도 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운영하여 대중들의 예술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범사회적인 지원과 기부의 확산을 기대해본다.

기업 사회공헌의 대표 사례들

예술에 대한 지원	예술 창작 지원	KT&G 상상마당
	예술가 양성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 문화예술 지원 사업
예술을 통한 지원	문화예술 향유 지원	대림산업 꿈나무 예술여행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한화그룹 예술더하기
	공공예술 지원	GS칼텍스 예술마루 조성

- 1·2·3 한화그룹은 아이들에게 전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더하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4 GS칼텍스가 여수에 건립 중인 예술마루 조감도. 문화예술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시작했다.



4

© GS칼텍스재단

엄청나게 소란하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사진작가

이근철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이갑철은 한국사진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경계 허물기의 일인자다.

그래서 그의 '결정적 순간'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보다 풍요로운 사진세계로 인도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84년 <거리의 양키들>이라는 전시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실험적인 개인전을 열어왔다. 드디어 2002년 <충돌과 반동>전은 한국사진계를 경악시키기에 이른다. 사진가로서 기존에 항거하는 반동적 시도와 새로운 완성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날개 없이도 어떻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이 전시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그 '충돌'로 말미암아 '반동'의 여진은 그의 '아우라'로 남아 아직도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생활을 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80년대 혼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양복을 입어본 적 없다는 그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소탈한 광장시장 막걸리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다. 한국인으로서 사진만으로 외국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지혜와 용기에 대해 들어보자.

선생님이 몸에 항상 달고 다니는 카메라는 손이나 다리처럼 피가 흐르는 선생님의 일 부라는 느낌이 듭니다. 잡자리에 드실 때도 사진기를 놓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진기는 피가 흐르지 않지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진기는 늘 내 몸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 때는 내려놓습니다.(웃음) 젊은 시절 어느 해에는 밤마다 사진 찍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정도 그랬지요. 이제 달고 다니는 사진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정서의 기저(基底)나 슬픔, 한(恨)을 가장 잘 찾아내어 찍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머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로 귀(鬼), 혼(魂)과 같은 한국 토착종교의 일면이 살아 나오는 듯한 기괴함을 너무나 잘 포착하시는데요.

나 스스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제법 많이 찍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체성의 알갱이를 찾아내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았던 것들이 100년 전 조선시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흔적처럼 남아 있기에 이를 찾아내고 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기운의 흔적들이 20~30년 지나오면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니까요. 중요한 시기에 사진가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거나 한국적 정서만을 찍기 위해 해외촬영을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낫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진은 소수에게만 열려 있던 예술 장르라 진주라는 지역에서 사진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의 암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알게 되면서 동네사진관 아저씨를 주말마다 따라다녔지요. 그냥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이유도 없이. 당시 살롱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실력도 알 겼 **<영상>**이란 잡지에 사진을 응모했습니다. 떨어진 신발이 빛나는 진창 위를 내려 밟기 직전의 사진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흔히 찍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이를 눈여겨본 분이 육명심 선생님이었어요. 그것은 운명이라고 봅니다. 희귀한 운명이죠. 대입 면접 때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셔서 깜짝 놀랐

습니다. “네가 이갑철이냐” 하시면서 너무 인상적인 사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저의 사진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육명심 선생님께 사사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가장 영향을 미친 작가는 누구입니까.

사진 인생으로 보면 육명심 선생님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롤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현대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프랭크입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어요.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심봉사의 심정이랄까요.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사진가의 가슴을 읽을 수 있는 기호가 숨어 있어요. 리 프리들랜드, 게리 위노그랜드도 매우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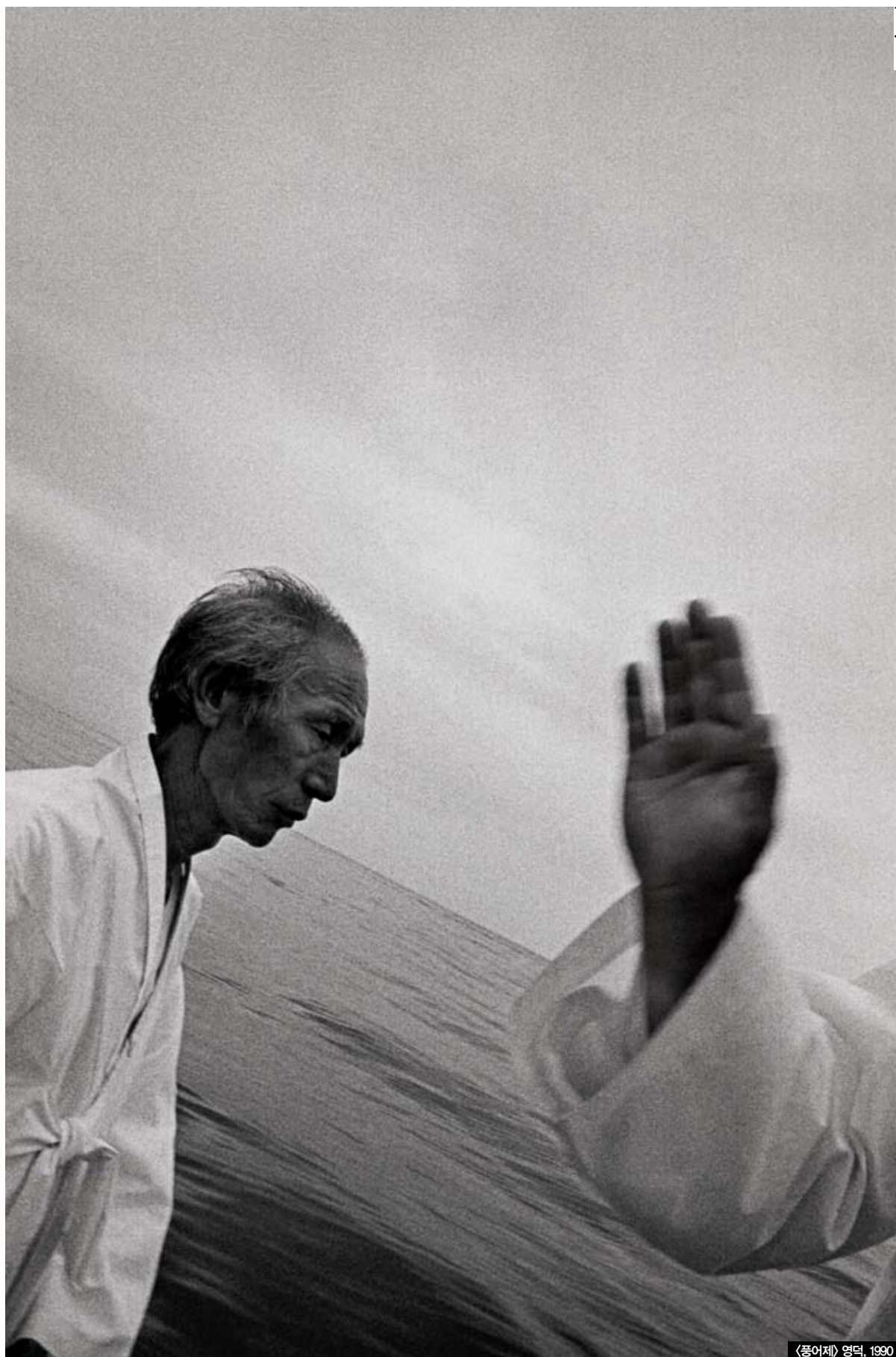
프랑스 미술 에이전시 뷰(Vu)의 소속 작가이신데 어떤 인연이었나요. 서구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근대사진가 10인>이라는 그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리의 후배들이 선배들 사진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사진을 들고 뷰갤러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인 기자 출신이고 독립해서는 뷰갤러리 아트디렉트가 된 크리스티앙 꼬쥘(Christian Caujolle)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너무 좋다고 바로 소속 작가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만나 서로 웃어가며 술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사진가들이 그렇습니다. 당신 사진은 매우 파격적이고 감각적이라고, 매우 신선하다고 그래요. 사진을 볼 줄 아는 거죠.(웃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삶은 무척이나 고단했을 것인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다큐 사진을 하는 분들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밥벌이는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면 엄살이겠지요. 직장에서 백과사전에 들어갈 사진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전국을 이 잣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정신적인 내연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었던 ‘도량 치고 가재 잡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2002년 개인전 <충돌과 반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진의 근대성이 마침내 도달한 지점’ ‘다큐 사진의 영역 확장’ ‘한국 100년 사진사의 큰 성취’ 같은 찬사



〈풍어제〉 영덕, 1990

들이 쏟아졌습니다. <충돌과 반동>은 전국을 돌면서 우리들의 기저를 끌어낸 작업인데, 주제를 미리 정해두고 대상을 찾고 사진 작업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작업과정 중에 얻어진 결과물인지 궁금합니다.

애초부터 <충돌과 반동>을 기획하고 전국을 유랑하진 않았습니 다. 우리 땅에 대해 저는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컨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마드(nomad)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미 역마살로 섬으로 산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녔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백과사전을 증보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자연생태보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떨어져 전국을 다니며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흔적들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것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묵언수행을 했던 셈입니다. 그러다가 <충돌과 반동>의 씨앗이 되는 ‘동해 안별산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욱 명확히 우리의 한(恨), 전통, 신화적 영감에 모든 것을 걸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지요. 그 결과로 <충돌과 반동>이 세상에 나와 모습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사진구도나 배치, 거친 입자가 선생님 사진의 특징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작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매우 의도된 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간성이지요. 저는 매사 세련된 것에 그리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 거칠고 투박하고 촌스러운 것에 훨씬 잘 매료되는 편입니다. 사진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담백하고 거친 흑백만을 고집하시는데요, 앞으로도 디지털 컬러 작업은 하지 않으실 건지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지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떨지.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디지털 사진이나 컬러 사진은 나를 잘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흑백과 수동카메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충돌과 반동> 이후 풍경사진에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현재 류가현에서 전시하고 있는 <가을에>도 그렇고요. <가을에> 사진은 꽤 오래전에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 다른 이유로 전북 임실과 경남 산청에 갔다가 우연히 무척 가슴시리고 빠근한 풍경이 펼쳐진 가을운동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산과 들, 반짝이는 강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운동회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결국 마음의 풍경으로 저는 이것을 사진으로 옮겼지요. 사실 사진을 찍어두고 마음에 들어는 했지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진을 다시 보다가 류가현과 이미지도 맞고 이 가을에 중년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이



<해탈을 꿈꾸며2> 해인사, 1993

“예술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에겐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문 밖의 소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할수록 어렵고 막막하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꽃을 머리에 얹은 소녀들》 합천, 1996

갑철을 불쑥 꺼내고 싶었습니다.

사진 유형의 흐름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너무 회화적이어서 엄격히 사진이라 말하기 주저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진 경향에 대한 선생님의 소회랄까요,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사진이 생겨났을 때 사진은 결국 대상을 그대로 담기였습니다. 이후 사진술이 발전하면서 살롱사진을 성행시켰지요. 말하자면 회화적 예술사진이 사진계에 바람처럼 일었습니다. 나중에는 지나치게 회화적인 측면이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서 사진의 진솔성, 즉 스트레이트 사진이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0년대까지 회화주의 사진이 성행했지요. 물론 해방 이후에도 어느 정도 회화주의 사진이 성행했지만 시류의 격변에 따라 리얼리즘 사진이 대두되고 사진의 작화 이론이 첨예화되면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지요. 오늘날은 미디어의 발전 덕에 사진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진을 조합하거나 해체하는 기술이 안배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경향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진세계가 풍요로워지니까요. 다만 저는 철저히 리얼리즘 사진, 즉 스트레이트한 사진에서 진정한 사진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작가나 후배들에게 사진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귀감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남겨주세요.

사진은 마음이고 삶이라 생각합니다. 찍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스려지고 사물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산책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얻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사진을 단순히 예술의 도구로, 차용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은 사진인데 결국 사진을 모르는 것이죠. 이런 바탕에서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없겠지요. 열심히 살아야 사진이 좋아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
작가 이갑철은 일상에 침착(沈着)하여 조용히 인내하며 길목을 지키는 사진가다. 그에게 비루한 일상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그는 예리한 독수리의 눈으로 일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매우 빠른 손놀림으로 묘한 장면을 명중시킨다. 그 순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진으로 화하는 순간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신세계로 거듭난다. 작가는 말한다. “사진은 할수록 어렵고 막막하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속에서 삶과 시대의 현실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한다. 작가는 또 다시 말한다. “예술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에겐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문 밖의 소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피부를 쓰러리게 하는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사진가는 절절하게 고백한다. 그가 관조하는 세계를 그는 그 누구보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준다.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전원을 떠나 도시의 깊은 산에 주막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도시를 ‘침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카메라로 담고 있다고 한다. 그가 내년쯤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서럽고도 아름다운 세계의 속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고 그가 막 일어선다. 그러고는 조명 가득하지만 쓸쓸한 도시로 걸어 들어간다. 그의 오른손에는 이미 물이 잔뜩 오른 사진기가 반짝거린다.

행동하는
방관자,

잔인한 세상을
저미다

〈돼지의 왕〉 연상호 감독





선부르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직 축포를 쏘아 올리기에 이르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하나 둘 들린다. 하지만 경솔해지고 싶은 기분이다. 이 놀랍고도 신나는 소식은 여기저기 좀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은 믿을 수 없게도 독특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무비콜라주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을 휩쓴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흔히 애니메이션은 말랑하고 따뜻한 감성의 작품이라 지레짐작하기 쉽지만 <돼지의 왕>은 전혀 다르다.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역사상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할 ‘잔혹 스릴러’를 표방한 이 작품은 실로 과감하고 직설적이다. 근래 보기 드문 강렬하고 힘 있는 메시지와 현실의 폐부를 도려내는 서늘함으로 둘러싸인 <돼지의 왕>은 침체된 애니메이션 산업에 일대 충격을 선사하며 실사영화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요즘 매일 관객 수 확인하고 있어요.” 연상호 감독의 농담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까닭은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역사상 이런 작품의 탄생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기적 같은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감독의 욕심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성공신화처럼 취급되는 걸 걱정했다. “힘들었지만 버티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불편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덮고 단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거든요.”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반문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 남자,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볼 수밖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눈 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그런 종류의 절망감을 체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폭력 and 권력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왜 이렇게 어둡고 진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이내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폭력은 그저 현상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린 차이와 절망감이에요. 그걸 관객에게 체험시키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뒤틀린 분노를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돼지의 왕>의 세계관은 불편하고 어둡고 우울하다. 1998년에 만든 첫 단편 <지옥: 두 개의 삶>에서부터 인간의 어두운 면을 탐구한 이유에 대해 그는 딱히 그런 주제를 일부러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세상은 공평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어요.”

폭력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폭력이란 이해집단 사이 교집합에서 생겨난다고 봐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휘두르는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들끼리 벌이는 의심과 원망과 다툼이 진짜 무서운 것이죠.” 그의 말처럼 <돼지의 왕>의 무시무시함은 개가 돼지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아닌 돼지끼리 물어뜯는 폭력에서 발생한다. 피지배자들의 공포와 의심, 좌절감이 폭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실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쉽게 연대해요. 하지만 피지배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다들 똑같은 입장인데도 아무도 선뜻 한 발 나서지 못합니다. 그건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피해당사자가 되기 전까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비겁함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 장벽이 무서운 겁니다.”

<돼지의 왕>이 선사하는 폭력은 작품 속 인물들보다 작품을 보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 끝내 폭력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희생되는 종석과 경민, 철수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을 보는 듯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넘어서 공포마저 느껴진다. 실제로 작품 속 폭력 재현 수위는 여타 하드코어 영화에 비하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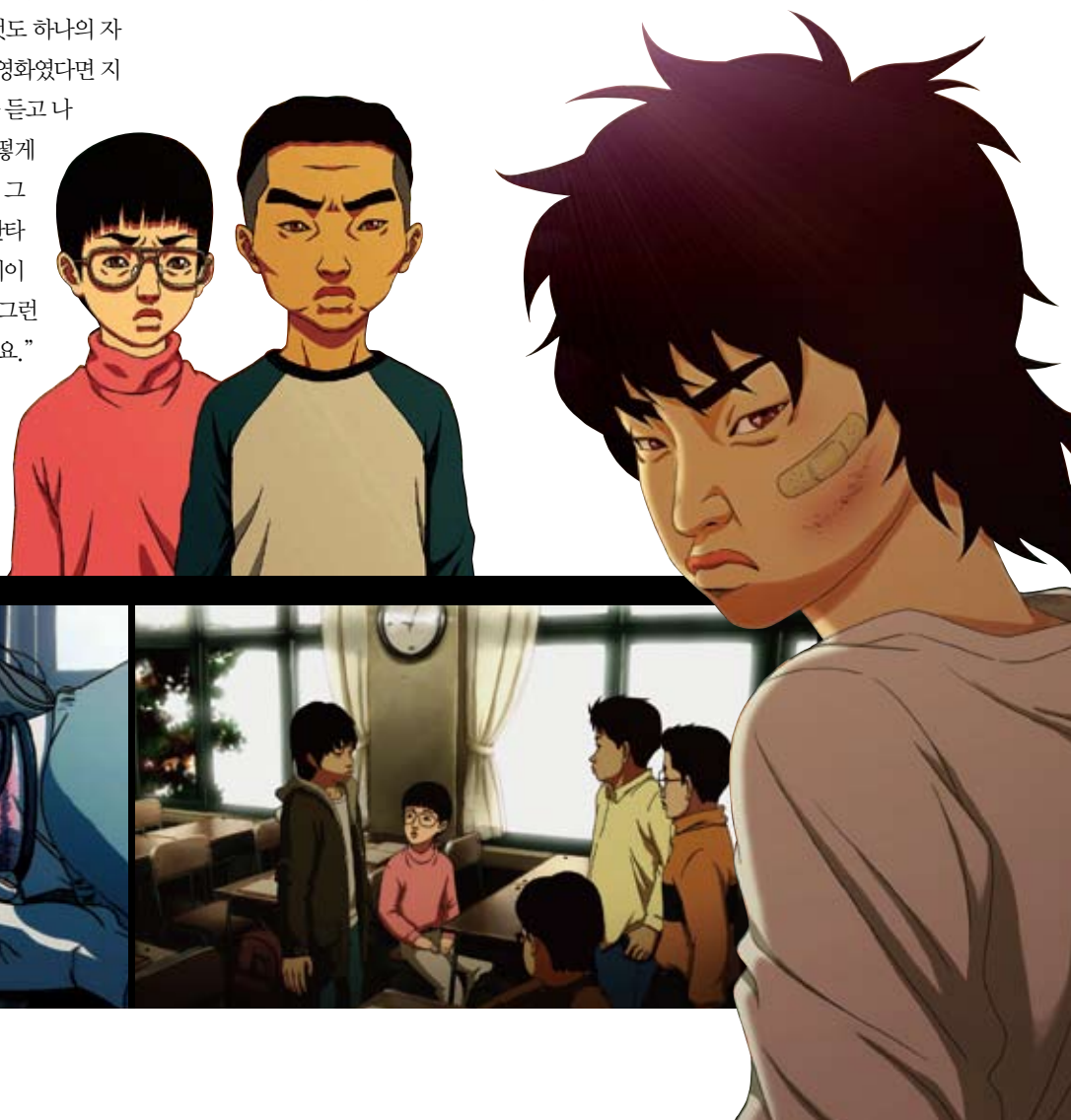
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관객이 감당해야 할 끔찍함은 상상 이상이다. 그것은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는 공포이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도 돼지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불편한 진실이다. 때문에 <돼지의 왕>이 전하는 불편함이 마냥 불쾌하지만은 않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눈 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 그런 종류의 절망감을 체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굴종과 패배에 익숙해진 우리를 깨울 강렬한 한 방. <돼지의 왕>은 우리가 폭력과 권력의 불편한 메커니즘을 자각할 수 있도록 잊지 못할 엔딩을 선사한다.

애니메이션 or 영화

고정관념과 정해진 틀에 대한 거부감은 그의 천성인 듯하다. 대사와 설명이 지나치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그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지점을 충분히 활용했을 뿐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낮간지러운 대사도 용납해주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대사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런 연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사영화였다면 지금처럼 찍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사항인 것 같았다. “그렇다고 완전 판타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돼지의 왕>도 물론 그런 연장선의 작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처럼 <돼지의 왕>은 현실을 넘어서지 않는 절제 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이야기였다는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떤 영화사에서 실제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무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실사영화였다면 지금처럼 완성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대사 문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십분 살려 만들었지만 못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은 표현의 제약이 덜하죠. 지구가 좀비로 덮여 멸망하는 것도 똑같은 그림이니까요. 판타지적인 지점을 표현하기 용이한 면이 있어요. 반면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기도 하죠. 소재와 연출적인 면에서 애니메이션은 꼭 이래야 한다는 식의 시선들, 그런 게 불편해요.” 그럼에도 이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수줍게 말했다. “그런 점에서 <돼지의 왕>이 어느 정도 그런 장벽을 깨부수었다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만들고 싶어요.”

그는 웃으면서 쉽게 말했지만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사막에서 수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도 제작비 확보를 위한 끝없는 행군 속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단편 <지옥: 두 개의 삶>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금방 장편을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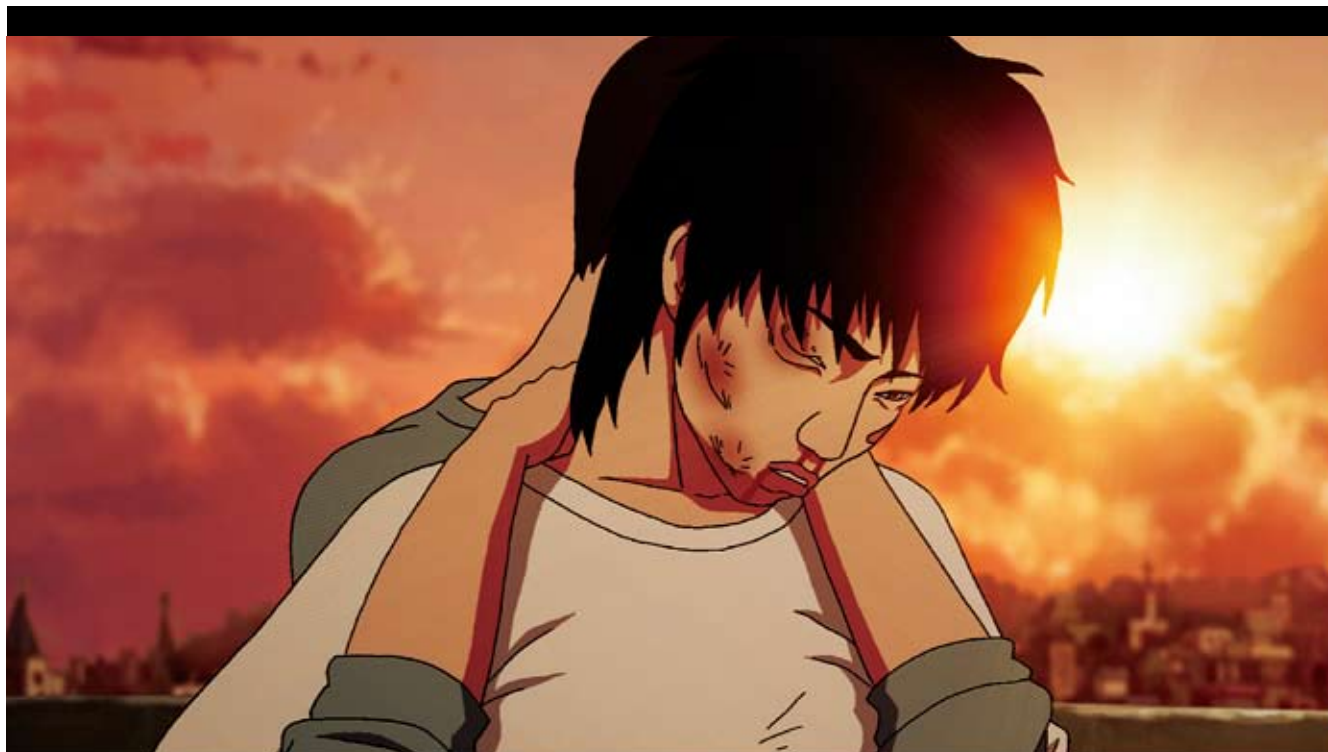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완성까지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린 〈돼지의 왕〉은 실질적으로는 2006년부터, 아니 군대시절 한 편의 시놉시스를 완성한 그 순간부터 잠시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된 작업이었다.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안 봤던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그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돼지의 왕〉의 성공에 대한 소감을 문자 손사래를 쳤다. “아직 성공이라 말하기는 이르죠. 실감도 잘 안 나고요. 솔직히 좋긴 한데 고민도 많습니다. 이런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드물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직접 만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생전 처음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인터뷰 중 가장 환하게 미소 짓는 그의 표정에서 애니메이션 시장과 저변 확대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묻어났다.

우상 but 의심

비관주의자일 거라는 편견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다. 어둠을 직시할 수 있는 이는 오히려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취급하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에 끝한다는 연상호 감독은 고민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TV를 보면서도 뻔히 속이 보이는 희망을 던져주거나 세상이 공평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이야기들이 유독 불편했습니다.” 그의 사유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세상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의 작업은 늘 고정관념

과의 대결이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안 된다는 잔혹스릴러를 꾸준히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르 자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일 뿐 목적은 아니었다.

“〈돼지의 왕〉이 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간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힘들다고 외면하는 순간 더 큰 폭력이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돼지의 왕〉은 얼핏 분명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내지르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파고드는 영화에 가깝다.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환상을 깰 것인가. 〈돼지의 왕〉은 우리가 손쉽게 의탁해버리는 우상에 대한 비판이자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며 우리를 둘러싼 절망스런 현실에 관한 대리 체험이다. “우리는 그동안 계급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바라본 경향이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을 ‘너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라는 식으로 취급하고 말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것만 느낄 수 있어도 그렇게 쉽게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겁니다.” 불안은 폭력을 자아내지만 폭력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야기는 논리적이야 하지만 감정은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일 때도 있고 돼지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과 입장의 문제죠.
작품 속의 강민도 아마 누군가 앞에서는
돼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문학적이란 말을 듣나? 워낙 대사도 많은 편이고 심지어 너무
길다는 핀잔도 들었지만 그게 이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
출이라 생각했어요.” 개개인의 사연은 그만큼 깊고 오랜 이해
가 필요하며 <돼지의 왕>이 그토록 절망의 체험으로 관객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절망감은 이 영화의 중요한 코드다. 돼지는 계속 돼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영화 속 개의 입장이었던 강민 같은 친구
들은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는 고개
를 저었다. “우리는 개일 때도 있고 돼지일 때도 있다고 생각
해요. 상황과 입장의 문제죠. 저도 예전에 학생 때는 교수님
들을 되게 싫어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비굴하
고 끔찍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강민도 아마 누군가 앞
에서는 돼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돼지들이
겪는 감정의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돼지의 왕’의 진
짜 얼굴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전
하고 싶은 진실의 다른 한쪽 얼굴이며 돼지 중에서도 방관자
였던 연상호 감독이 용기 내어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이다.

연상호의 it 아이 템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연상호 감독의 독특한 세계관도 물론
이전의 수많은 작가와 작품으로부터 빛을 지고 있다. “나는 상
상력이 빈곤한 사람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방대하게 아이디어
를 채집할 수밖에 없다”며 엄살을 떠는 그의 표정에서는 즐거
움과 열정이 가득 묻어난다. 마니아적인 재미만이 아니라 대중
성과 소통에 관해 늘 고민하는 만큼 그의 의식이 축수를 뺀고
있는 범위도 실로 방대하고 다양하다. <드래곤볼>과 같은 베
스트셀러는 물론 <헬로우 미스터 블랙잭>이나 <사채꾼 우시지
마> 같은 개성 넘치고 강렬한 만화들도 두루 즐겨본다고 한다.
“아마 원류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겠죠. 거칠고 사실적이고.”

만화뿐 아니라 이창동 감독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에도 열렬한 관심을 표했다. 서늘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관습과 틀에 갇히지 않고 이야기 자체에 매진하는 그의 연출적 특징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 본 가장 인상
적인 작품으로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람한 에릭 쿠의 <타츠미>를 꼽았
다. 일본 성인극화의 문을 연 만화가에 대한 전기 형식의 이 애니메이션을 두고
“소년만화가 대세였던 일본에서 주인공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가 흥미로웠
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만화인데도 문
학에 가까운 내용이나 심지어 첫 단편의 제목이 <지옥>이었다는 것까지. 처음
볼 땐 정말 신기했어요”라며 신나하는 그의 표정은 어느 팬의 얼굴과 다르지 않
았다. 그의 작품에 대한 충실한 헌신의 비밀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에게 있어 즐기는 일과 제작하는 일은 구분되지 않는 생활에 가까운 것처
럼 보였다. 쉬는 날에는 뭘 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요즘은 작업을 안 하는 날이
면 불안해요. 친구들과 떠는 수도도 대부분 작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고, 이러
다 취미도 없어지고 심심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에요”라는 즐거운 푸념으로
답했다. 그의 다음 작품이 절로 기다려질 따름이다.

글. 송경원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익히며 말하는 중인 영화평론가. 영화 관련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영화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

교수 & 배우, 매튜 슬라이트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매튜 슬라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 서울호서전문학교의 교수이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와 <개그콘서트>로 얼굴을 알린 배우, 그리고 두 권의 영어회화 책을 펴낸 저자이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좋은 서울시 명예시민.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을 하면서도 가슴에는 늘 새로운 도전과 꿈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영국인 매튜 슬라이트를 만났다.

● 지난 10월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셨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지만 역시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명예 시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인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까요.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겼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느낌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영국에서 당시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때 아내가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생겨났던 차라 아내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도 무조건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떠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 비교해,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대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할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서양인은 모두 미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미국인, 혹은 캐나다인이라고만 생각했



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데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국인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는 듯해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일도 훨씬 쉬워졌고요.

처음 한국에 오실 때부터 배우 일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계획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시작하게 됐지요. 우연히 한 모임에서 방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의 소개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조역을 처음 맡았습니다. 그 후 <거침없이 하이킥> <역전의 여왕> <아테나> <국가대표> <포화 속으로> 등의 드라마와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고, <개그콘서트>에서 코미디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영국에서 전문적으로 배우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아홉 살 때부터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었기에 연기가 낯선 분야는 아니었지요. 한국에 동네



마다 영어학원과 태권도학원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동네마다 연기학원과 댄스학원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매년 〈피터팬〉 〈신데렐라〉 등의 팬터마임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공연이 잡히면 몇 달 전부터 연습에 들어갔고, 의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어요. 그때 배운 바느질 기술로 지금도 제 옷과 아이들 옷을 직접 수선 하곤 하지요. 아내가 아주 좋아해요.(웃음)

〈개그콘서트〉 ‘굿모닝 한글’ 출연은 어떠셨나요? 정극이 아닌 코미디 연기라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큰 도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저를 보고 웃어주는 관객들을 대면하며 연기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쉽게 지난 9월 종영되긴 했지만, 그 후에도 함께 일했던 개그맨들과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진 〈정가악회, 세계문화와 만나다〉 무대에도 서신 걸로 압니다.

〈정가악회, 세계문화와 만나다〉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영국문학이 결합된,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한 신선한 공연이었습니다. 국악에 관해서는 원래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고, 한국에서 연기를 시작하면서 공연 무대에도 서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지요. 모든 감정을 작품에 쏟을 수 있어 좋았고요. 이처럼 관객을 직접 마주 보며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꼭 잡고 싶습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교양영어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가르치는 일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 일에 커다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회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영어에 편안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들이 실제로 말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지요. 한국 학생들은 완벽한 회화를 구사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영어회화는 자전거를 타는 일과 마찬가지로, 배우려면 일단 자전거에 올라타야 하는 것처럼,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열어야 하지요. 영어회화는 영어회화를 통해서만 익힐 수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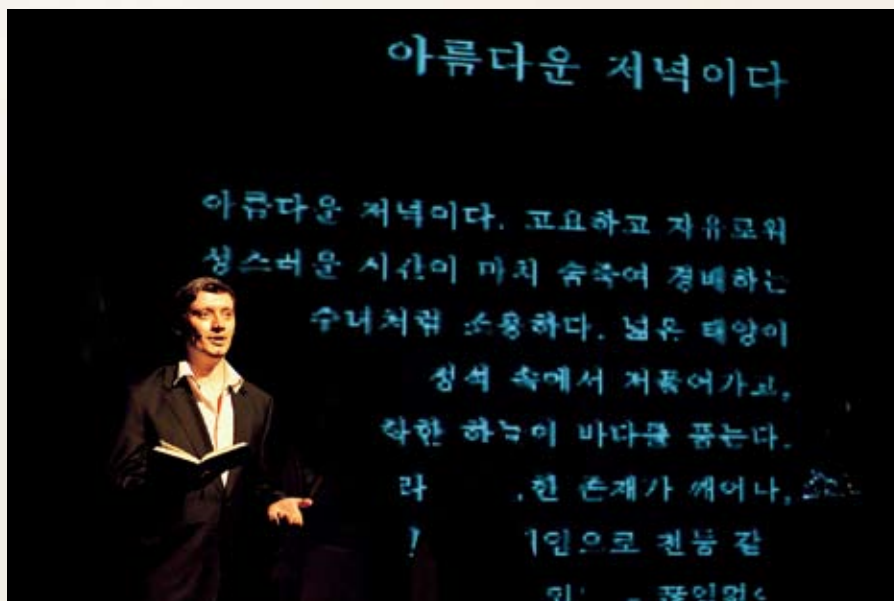
그 때문에 직접 영어회화 책을 쓰신 건가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좋은 읽기와 쓰기 책은 많지만 좋은 회화 책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회화 책이 듣고 따라 하기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기로 마음먹었지요. 〈Speak Out: We're Listening〉이라는 제목으로, 총 네 권의 시리즈인데 현재 2권까지 나왔고 3권을 집필 중에 있어요. 최소 두 명의 학생이 실제적인 대화를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많은 영어강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강서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강서구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내를 따라 저도 영어캠프와 영어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강서구에서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액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태권도와 합기도, 검도 등을
연마하고 있어요. 또 라디오나 TV에서
제 토크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일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막악회, 세계문학과 만나다〉 공연 중. 한국 전통음악과 영국문학이 결합된 작품으로, 한국에서 처음 선 공연 무대라 더욱 뜻깊었다.

허준박물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하신 건가요?

강서구에서는 매년 허준축제가 열리는데, 강서구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라 저희 가족도 빠짐없이 참여하곤 합니다. 지난해에는 웰빙음식 만들기에도 도전해 특별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옛 어의 시험을 재현한 ‘어의방방례’라는 행사에 출전해 장원급제했어요. 이렇게 해마다 허준축제에 참여하다 보니 허준 선생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올해부터 허준박물관 외국인 해설사로 활동하기에 이르렀지요. 박물관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허준 선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살고 계신 강서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강서구 이외에도 자주 찾으시는 동네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한강으로 자주 산책을 가곤 합니다. 아름다운 고궁과 청계천이 자리한 시청 부근도 제가 좋아하는 동네고요. 새로 개통된 9호선 덕에 서울의 어느 곳으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지요. 제가 강서구를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제가 방문한 도시들 중 가장 정돈된 도

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지하철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올 초에 방송된 〈인간극장〉에서 책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보실 때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과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 중이셨는데, 그간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요?

한국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긴 하지만, 늘 공부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예요. 하루빨리 유창한 한국어로 장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기, 강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또 다른 분야가 있으신가요?

액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태권도와 합기도, 검도 등을 연마하고 있어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촬영 당시에는 차에 뛰어들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위험한 장면들도 대역 없이 연기하곤 했지요. 덕분에 네 번이나 병원에 실려 갔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기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고들도 액션 연기에 대한 제 열정을 사그라지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라디오나 TV에서 제 토크쇼를 진행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일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 윤현영 여행 잡지 기사를 거쳐 현재는 독립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시골벽적인 도시의 다채로운 모습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좋아한다.

사진. 백중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다.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12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2

THEATRE

3.15(목) - 17(토)



피터 브룩의 오페라
〈마술 피리〉

Opera "A Magic Flute" directed
by Peter Brook

5.3(목) - 6(일)



뉴질랜드,
레드 립 씨어터
〈도착〉

New Zealand, Red Leap
Theatre "The Arrival"

5.11(금) - 13(일)&
16(수) - 17(목)



이재람의 판소리
브레히트〈억척가〉 앵콜

LEE Jaram, Pansori Brecht
"Ukchuk-ga"

10.11(목) - 14(일)



양정웅 연출
〈페르귄트〉 앵콜

"Peer Gynt" by YANG Jung Ung

10.19(금) - 21(일)



오렐리아 피에리와
빅토리아 채플린의
〈속삭이는 벽〉

Aurelia Thiérree & Victoria
Chaplin "Murmures des Murs"

11.1(목) - 4(일)



이보 반 호프 연출
〈오프닝 나이트〉

Toneelgroep Amsterdam directed by
Ivo van Hove "Opening Night"

DANCE

9.20(목) - 21(금)



램버트 댄스 컴퍼니
Rambert Dance Company

9.14(금)-16(일)



프랑스 안무가 피에르
리갈과 한국 무용수들의
공동 프로젝트
〈Theatre of
Operation〉
Pierre Rigal with Korean Dancers
"Theatre of Operation"

6.2(토) - 3(일)



힙합 댄스 그룹,
컴퍼니 카피크
〈AGWA & Correria〉
Company Kafig Hip-hop dance

4.5(목) - 7(토)



DV8 무용단
〈Can we talk
about this?〉
DV8 "Can we talk about this?"

3.22(목) - 23(금)



호페쉬 쉼터 컴퍼니
〈In your rooms〉&
〈Uprising〉
Hofesh Shechter "In Your
Rooms" & "Uprising"

THEATRE

12월 중순



고선웅 연출 신작
New Creation by KO Seon Ung

DANCE

11.16(금) - 17(토)



정영두 안무
〈먼저 생각하는자 -
프로메테우스의 불〉
DOO Dance Theater
"Prometheus" choreographed
by JUNG Young-Doo

3.29(목) / 6.21(목)
9.6(목) / 11.8(목)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펜 소나타 전곡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6.5(화)



르 콩세르 스피리튀엘
Le Concert Spirituel

6.24(일)



이젤벨 파우스트 &
알렉산더 멜니코프 듀오
Isabelle Faust & Alexander
Melnikov duo
(violin & piano duo)

10.25(목)



리처드 이가 &
카메라타 안티와 서울
Richard Egarr leads Camerata
Antiqua Seoul

11.25(일)



피에르 로랑 에마르
Pianist Pierre-Laurent
Aimard

CLASSICAL MUSIC

JAZZ & WORLD MUSIC

10.6(토)



호드리고 레아웅
Rodrigo Leao

9.7(금)



밍거스 빅밴드
Mingus big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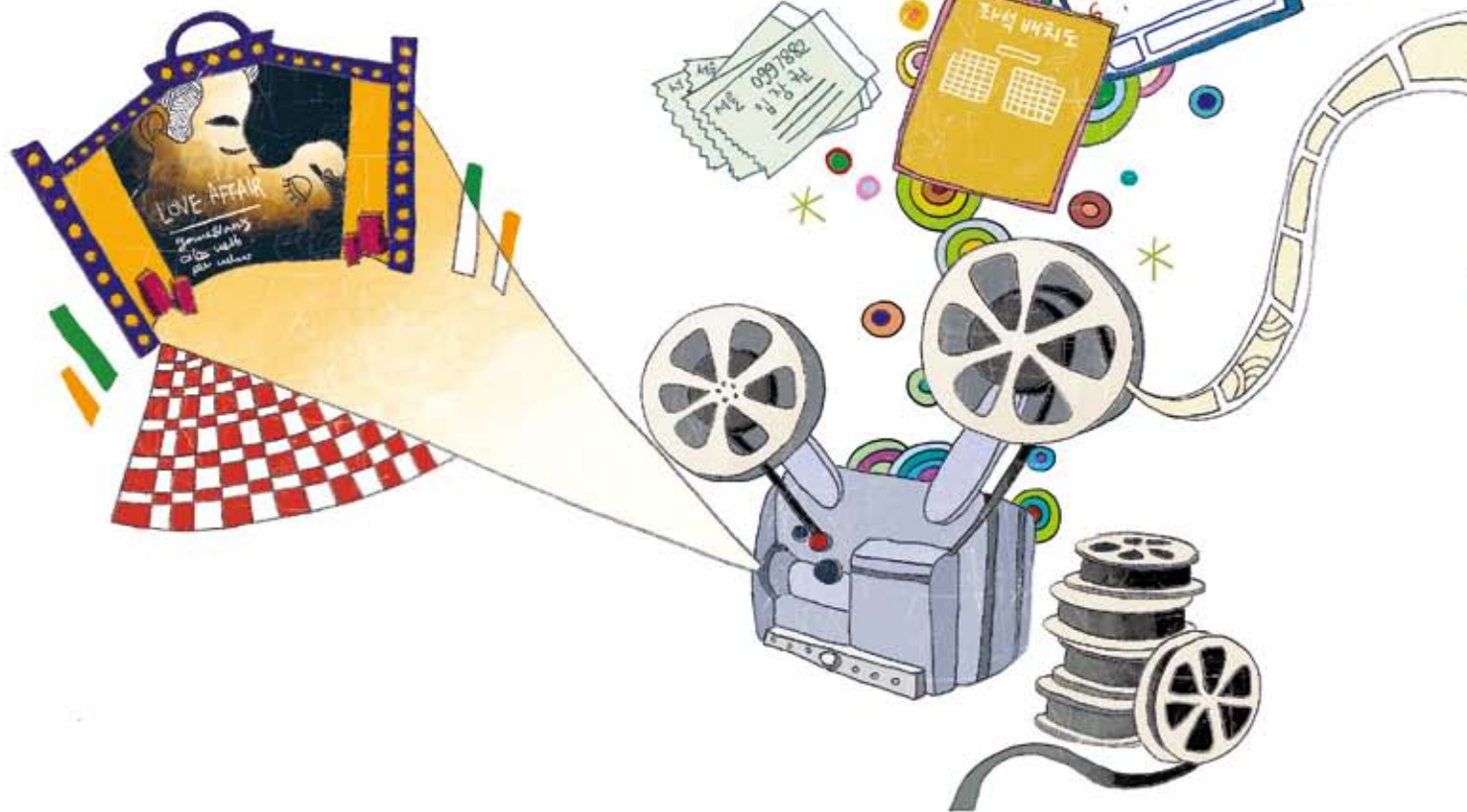
6.10(일)



우테 렘퍼의 〈베를린
에서의 마지막 탱고〉
Ute Lemper "Last Tango in
Berlin"

그때 그 많던 극장은 어디로 간 걸까

개그맨 임혁필, 종로의 극장을 추억하다



어느 날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쓴 〈서울역사기행〉이라는 책을 보고 걸려온 전화였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서울문화예술탐방’에 서울 시민에게 북촌에 모여 있는 박물관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책을 쓰면서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본 경험이 있기에 재미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다.

서울 출신 맞아?

서울은 지방 사람들에게 세련되면서도 차가운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나 역시 서울 사람인데도 구수한 외모 덕인지 처음 만난 이들은 아무도 나를 서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울에도 읍이 있냐”며 놀리는 이도 있다. 부산 출신의 개그맨 후배 신봉선은 서울에 올라오기 전, 서울 남파

들은 모두 꽃미남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한때 서울 출신의 선배들이 나를 포함해 갈갈이 박준형, 옥동자 정종철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단다. 하물며 넓은 잇몸으로 유명한 오지현은 강남 청담동 출신이다. 이처럼 서울에는 꽃미남뿐만 아니라 구수한 이미지의 개성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서울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재미있고 특별한 곳들이 많이 자리한다.

서울 시민들과 북촌의 여러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북촌생활사박물관에서는 어린 시절 너무나 흔해 쉽게 버려지거나 무관심했던 물건들에 눈길이 갔다. 문을 여닫는 텔레비전, 다이얼이 달린 검정 전화기, 커다란 옛날 라디오, 타자기…. 세월이 흘러 구하기도 어려워진 이 물건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보니 새롭게 느껴졌다.



못난이 삼형제 인형도 여기에 속했다. 이 못생긴 인형은 집집마다 텔레비전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거금을 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물건들은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서울 일대에는 이 인형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네가 있다.

나는야 할리우드 키드

어린 시절의 나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기에, 주말이 되면 종로 일대에서 영화를 관람하곤 했다. 옛날식 건물의 단성

가까운 동네에 극장이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종로, 아니면 충무로로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휴대폰이 없던 학창시절, '극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에 30분이건 한 시간이건 기다리곤 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롭다.

사, 건너편 피카디리. 두 극장 사이에는 골목이 하나 있는데, 이 골목은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자주 활보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건너편의 서울극장, 낙원상가에 자리한 허리우드극장, 충무로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타나는 명보극장, 스카라극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면의 대한극장 등,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이 일대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였던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를 안 걸리고 봤다고 좋아했던 기억, 피카디리 앞의 핸드 프린팅에 내 손바닥을 대보았던 기억, 워렌 비티와 아네트 베닝 주연의 <러브 어페어>에 대한 추억도 있다. 고등학생 때 정말로 좋아했던 여학생과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러브 어페어>의 포스터가 키스하는 장면이라 괜히 민망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 대신 손코네리의 <함정>을 관람했다. 하지만 영화가 우리의 기준에서는 너무 재미없었던데다 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 여학생에게 핀잔만 듣고 말았는데, 세월이 흘러 나 혼자 본 <러브 어페어>는 무척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라 눈물이 날 정도였다. 아, 그때 그 여학생과 이 영화를 봐야 했는데, 이밖에도 <람보>를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서다 아버지한테 걸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기억, 대한민국 최초로 돌비음향 시스템을 도입한 명보극장에서 그 사운드에 깜짝 놀라했던 기억도 있다.

종로와 충무로 일대는 할리우드 키드였던 내게 꿈과 상상의 동네였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지금은 없어진 극장도 있고 공연장으로 변신한 극장도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감동이 영원한 것들도 많다. 흑백영화인 <로마의 휴일>보다 세련된 로맨틱 영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요즘 멀티플렉스에 영화를 보러 가면 의자도 폭신하고 화면도 크다. 안경 하나만 쓰고 있으면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의자가 흔들리기도 한다. 가까운 동네에 극장이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종로나 충무로로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던 학창시절, '극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에 30분이건 한 시간이건 기다리곤 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예술 x 산업 = !

컬처노믹스를 넘어서

2011년 7월 7일자 <the Atlantic>에는 '경제위기의 놀라운 생존자 : 예술'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첫 문단은 "만약 당신이 예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행운이다"로 시작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지만 기사를 들여다보면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노동청과 NEA(미국 국립예술기금)가 진행한 분석 리포트에 근거하고 있기에 무시하기도 어렵다. 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현재 같은 경제위기에서 예술 관련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부문, 특히 프리랜서 부분의 확대 때문이란 사실이다. 기술과학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개인 삶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학의 진보와 전문분야 진출이 연결되어 예술 관련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사업비가 없어서 소장하고 있는 샤갈의 그림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다고 하고, 필라델피아 심포니는 파산 지경이며, 기업문화재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흥흥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여건이 좋아지는 분야가 박물관 관련 기술·보존·큐레이터, 조정, 인테리어, 건축, 작가, 연극배우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취향이 필요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환경에의 요구라는 설명이 있고 바로 이 지점이 송곳구멍같이 희미하지만 빛과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다.

정신을 뒤집는 예술실험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문제에서 시작된다. 흔히 말하는 국산 산업과 상품의 문제를 보자. 대중의 취향은 이제 식상한 공산품 혹은 기능만 중

요시했던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 '장인' '명장' '명품'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요사이의 변화를 봐도 그렇다. <운광준의 생활명품>(운광준 지음, 을유문화사, 2008)과 <우리 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유홍준 외 지음, 북노마드, 2010)가 그 예다. 비싸서 명품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와 품격이 있어서 눈을 돌리게 되는 시점으로 넘어서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연관이 없을 수 없지만, 조금 다른 문제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일하고 회식하고 또 일하는 문화에 빠져 있던 30~50대 직장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복 시장 규모가 여성복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펴낸 '섬유패션산업동향'에 따르면 12조 4,378억 원 규모의 2008년 하반기 의류시장에서 남성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여성시장(47%)보다 6% 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의류시장에서 남성시장의 비율은 2009년 상반기(52.8%), 2009년 하반기(53%), 2010년 상반기(53.7%)로 남성복 대 여성복 비율이 꾸준히 53 대 47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코노믹 리뷰> 2011년 8월 23일

특히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지금까지 문화향유의 불모지였던 중년남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시티 논의나 컬처노믹스를 넘



2



3

- 1·2 금천예술공장의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
 - 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 ©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사무국



1 금천예술공장의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
2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관련 예술가-산업계 간 프로모션 미팅 장면.
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사무국

어서 이제는 정신을 뒤집는 실험, 적극적인 산업, 환경에의 참여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요건이 될 것이고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본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듯 무르익은 대중의 인식과 욕망은 기능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생득된 미적 감각에 기능의 결합을 요구했던 르네상스인들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놀 수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물론 15세기 피렌체인들도 미술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나름대로 좋은 것을 수집하는 등 근대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물건들을 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기능에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의 쓰임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교회의 제단이나 가정의 프레스코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였다.

—〈피렌체 르네상스〉(리처드 터너 지음, 예경, 2001) 39~40쪽

문화정책에서 예술산업으로

이제까지의 문화정책은 대부분 '문화향유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예술활동 혹은 예술정책의 산물이나 매우 독립적이고 사적인 창작물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격 유통의 기반을 만들고 길을 내주는 역할이 문화정책의 주요 업무였다. 그 사이에 문화기획자라기보다는 활동가, 교육 및 체험 전문가 같은 '거간' 집단이 활동했다. 취약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예술을 통한 '날' 콘텐츠의 공급으로 일단 높이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향유자들은 미디어의 영향, 나아가 이제는 세계와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점차 '취향

과 감각'이 축적되면서 '눈'이 높아져갔다. 문화의 수동적인 향유자, 일상의 일차원적 소비자에서 적극적으로 취향을 가지는 '눈명창' 소비자로 진화했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화향유 대상은 적극적인 취향에 목말라하는 감각 뱀파이어가 되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사업 중에 '문전성시'라는 것이 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일컫는다. 사업 초기에는 재래시장에 문화를 입혀서 문화향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진화해가면서 점차 문화예술의 손길로 시장의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벤트, 포장, 인테리어, 협업, 브랜딩 등이다. 이 사업의 PM은 문화활동가 혹은 매개자를 넘어서 이제는 문화경영 기획자로 진화하고 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러한 경험과 축적되는 역량은 PM을 생산력 있는 연출가로 육성하고, 시민을 취향의 소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계적인 궤도에 오른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일정 수준에 오른 시민들의 허골을 만족시키기 위한 스타일리시한 '일상'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영역은 신대륙처럼 열려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장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의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기술 기반 창작아이디어에 대해 창작비와 전시, 사업화를 지원한다. 금천예술공장 인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술을 통한 사업모델 창출, 산업단지와와의 협업을 통한 창작은 작

업공간과 제작비 지원이 중심인 기존 레지던시 스튜디오와 차별화하려는 금천예술공장의 도전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제조업 중심지에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만여 개 산업체에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와 사업화 아이템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가-산업계 간 프로모션 미팅은 예술가 및 창작자에게 아이디어나 예술작품이 그 자체의 가치를 넘어 일반 제조상품, 문화예술산업 콘텐츠, 서비스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하는 폭넓은 비즈니스 적용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 두 해째로 접어들며 공모가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로 창작지원 개발작에 대해 산업체와 상업 부문에서 사업화 또는 구매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화'를 전제로 한 예술가와 산업체 간 협업 사례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술의 손길이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

물론 이 신대륙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크라켄과 블랙펄이 호시탐탐 노리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다행히 신대륙은 꼭 잉카의 금덩어리일 필요가 없다. 취향의 다변화와 감각의 발달은 사실상 대박 신화에 대한 욕심을 많이 제거했다. 대신 넓고 다양한 스펙

크리에이티브 시티 논의나 컬처노믹스를 넘어서 이제는 정신을 뒤집는 예술실험, 적극적인 산업, 환경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트럼의 가능성을 열었다. 재래시장의 간판에서 어물전의 가판대, 버스정류장 앞 서점의 인테리어, 창고세일 물품에서 감자탕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전 세계에 퍼지는 스마트 시장에까지 예술의 손길이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 깔끔한 기획, 체험을 통한 유통의 개척, 탐미적인 욕심과 자존심, 통섭이든 융합이든 협업할 수 있는 인내 등이 필요하다. 지난하고 험난한 독립적인 실험활동은 이 모든 도전을 이끌어가는 향해 기술처럼 외롭고 어려운 선각자의 역할로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 점은 중요하다. 이제 다들 뒤돌아 떠난 리버풀 선창가에 흠어져 있는, 청어대加里 같은 기금이나 국고에 목매달기에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

글 김규원 2000년부터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지역 축제, 지역 문화정책, 문화시설 관련 정책, 지역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가 있다.





연말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연 + 전시 + 축제 리스트

문화로 연말 나들이



1



2

스페셜 또는 로맨틱, 다양한 공연

조승우가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최고의 화제작으로 뮤지컬 〈조로〉를 꼽는 이유의 팔할은 조승우 때문이다. 3시간 1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깨알 같은 유머를 구사하는 유쾌한 영웅 조로가 조승우라면? 그에게 〈지킬 앤 하이드〉의 무거운 그림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사벨 아옌데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조로〉는 2008년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뮤지컬. 왜냐 조로로 돌아온 조승우 뿐 아니라 박건형, 김선영, 김준현, 조정은 등 화려한 뮤지컬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도 기대되는

공연이다. 천재 오보이스트 함경, 감미로운 보컬 팀과 신델라, 디토 오케스트라 등 유키의 친구들과 함께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시골 마을을 담은 포스터도 낭만적이다. 유키 구라모토 베스트 컬렉션 외에도 헨델의 〈시바 여왕의 도착〉, 바흐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물론 무엇보다 기대되는 연주는 캐롤 메들리다.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은 또 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파리나무집자가 소년합창단이 내한한다. 파리나무집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은 〈모차르트 자장가〉 〈넬라판타지아〉 〈You raise me up〉 〈힘찬 세상 다리가 되어〉 등 정통클래식 음악과 크로스오버 뮤직, 세계 각국의 민요가 어우러진다. 세계에서 유일한 이카펠라 소년합창단답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 1 뮤지컬 <조로>
- 2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의 유키 구라모토
- 3 <에두아르도 칠리다>전
- 4 <열두 서고, 열리다>전
- 5 산타 스포츠 페스티벌

문화지수 높여줄 각양각색 전시회

현대 조각의 거장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아는가. 스페인 출신의 이 작가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조각으로 이름을 떨쳤다. 칠리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는 12월이면 끝이 난다. 칠리다의 예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고 싶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전시를 찾아가도록 하자. 철, 돌, 점토로 제작된 조각 작품을 비롯하여 판화, 콜라주, 아티스트 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으로 서고를 활짝 열었다. 이름 하여 <열두 서고, 열리다>전. 도서관 개관 66년을 맞아 기념 특별전을 마련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급 고문헌, 족보, 고지도, 근대 잡지 창간호, 교과서 등의 귀중한 자료를 300여 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청춘>(1914), <개벽>(1920)처럼 말로만 듣던 잡지를 비롯하여 귀한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다.

2010 일우사진상 수상작가 장태원의 사진전도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피해 현장에 찾아가 작업한 작품 <Generic Landscapes>가 소개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한밤의 풍경은 대형카메라로 장시간 노출하여 대낮같이 밝다. 지진 현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작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 반복되는 자극에 무더져가는 감각에 천착한다. 일본 지진에 대한 장태원의 예술적 해석이 궁금하다.

연말에는 일상탈출! 판타스틱 축제

국내 최초 겨울 실내형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판타지(CDF)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온다. 음악축제를 즐기면서 새해를 맞는 환상적인 카운트다운 이벤트다. 지난해보다 비주얼은 더욱 화려해지고 아티스트의 참여도 강화됐다. 10cm, 몽니, 이승열, 한희정, 클래지콰이, 더 문사이너스, 요조, 게이트 플라워즈, <탑밴드> 우승팀인 톱식 등이 참여한다. 과연 아티스트형 음악의 결산이라 할 만한 무대다.

수익금을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으로 주는 2011 산타 스포츠 페스티벌은 기부 나눔의 축제를 표방한다. 5km 마라톤, 걷기, 스케이트, 단체 줄다리기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준비돼 있다. 스포츠 축제를 즐기면서 나눔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행사다. 산타의 마음으로, 산타망토를 걸치고 함께 내딛는 걸음이 의미 깊다.

고품격 오페라를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1회 대학로 오페라 페스티벌은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소극장 오페라 축제다.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개막작 <사랑의 묘약>을 시작으로 <돈 파스칼레> <카르멘> <마술피리> <신데렐라>까지 다섯 작품이 공연된다. 이번 연말에는 젊은 감각의 오페라를 소극장에서 즐겨보자.



프로그램	일시	장소
조로	2012년 1월 15일(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월 25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파리나무심자가	12월 9일(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12월 18일(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특별초청공연	12월 20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에두아르도 칠리다 전	12월 12일(월)까지	신세계 갤러리
열두 서고, 열리다 전	12월 28일(수)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특별전시장
장태원 사진전	12월 28일(수)까지	일우스페이스
카운트다운 판타지	12월 30일(금)~31일(토)	악스코리아 (AX-KOREA)
산타 스포츠 페스티벌	12월 10일(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대학로 오페라 페스티벌	12월 11일(일)까지	대학로 오 씨어터





소셜미디어, 문화예술계를 뒤흔들다

문화예술과 SNS 1

얼마 전 리들리 스콧이 제작한 영화 <Life In a Day>가 개봉했다. 전 세계 사람들의 2010년 7월 24일 하루의 일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보통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공동작업이자,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한 영화로 극장과 유튜브(youtube.com/lifeinaday)에서 개봉하였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선발된 유튜브 오케스트라(youtube.com/symphony)가 카네기홀이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세계적 무대에 올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바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2010년 유튜브 플레이(youtube.com/user/playbiennial)를 통해 올라온 독창적인 디지털 영상을 작품으로 선정하여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하기도 하였다. 영화, 공연, 전시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작물이 디지털을 통해 협업 예술로 재탄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의 참여로 탄생한 이 같은 혁신적인 문화예술 작품에 열광했다. 과정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감(like)'을 표현하고, '대화(tweets)'를 쏟아내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었다. 유튜브는 극장이 되었고, 갤러리가 되었으며, 무대가 되



2

- 1·2 전 세계 8만 명의 특별한 하루를 기록한 영화 <Life In a Day>.
- 3 인터넷 오디션만으로 단원을 선발한 유튜브 오케스트라.
- 4 온라인으로 선발된 동영상들 구현하임 미술관에 전시한 2010년 유튜브 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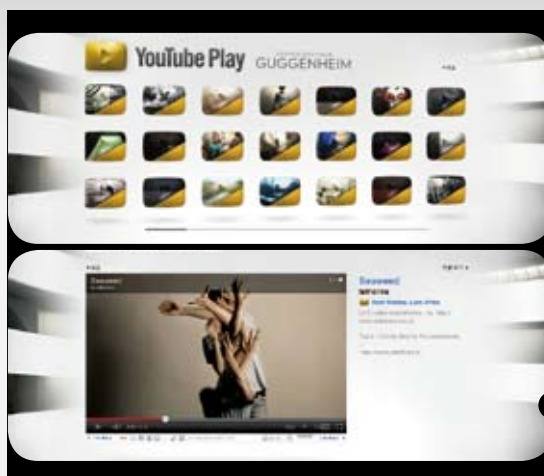
어 예술을 담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탄생하였다. 이는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을 넘고, 국경을 넘고,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내 손안에서 즐기는 현실의 예술로 만들어주었다.

이처럼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산과 소셜미디어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가치 사슬인 창작, 매개, 향유의 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문화예술계를 흔들었다. 관객이자 향유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소비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화에 따른 사용자 친화적인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생산자로서의 소비자가 되는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이자, 프로 못지않은 아마추어인 프로쥬어(Protute)로 변모해갔다. 관객은 수용자를 넘어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면서 예술작품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스스로 작품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창작자가 되기도 했다. 보다 많은 일반인과 아마추어가 직접적인 생산자 집단이자 아티스트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술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향유와 소비 자체가 훨씬 적극적으로 쌍방향에서 일어나면서 수용자가 생산 및 창작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지배적인 미디어로 성장하였다.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발전은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관객에 의해 주도되면서 밑에서부터 달라지는 문화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의 성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의 근간이 된 웹2.0의 특성인 개방, 공유, 참여를 가능하게 한 기술 발전에서 기인한다.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확산 속도나 접근용이성에서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환경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조건을 갖추면서, 빠른 소통 속도와 경계 없는 광범위한 확장성으로 파급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참여 창구이기 전에, 공유와 확산이 빠르고 적은 비용에 비해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하여 예술가, 관객이 소셜미디어로 모여들면서 매스미디어보다 강력한 미디어로 발전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고객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돈 탭스콧이 쓴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참고)에 해당하는 미래의 잠재고객을 개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창구로의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고객과의 관계형성 채널로서 그 활용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배급 유통모델로 인해 원하는 때와 장소, 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다양해진 미디어를 이용해서 폭넓은 계층이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관계형성을 통한 관객 개발 창구로 확대



3



4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정직되어 있던 예술계 전반의 소통을 증대시켰으며, 예술계가 시도하는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혁신의 근간이 되었다.

창작의 변화, 개별에서 협업으로

변화는 예술창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커졌던 집단의 힘은 소셜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취향을 공유하던 수준을 벗어나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변모되어갔다. 커뮤니티가 발달하던 시기에는 관객이 공연을 집단적으로 '소비'했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가 쉬워지고 공유채널이 발달하면서 관객은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 창작을 위한 협력을 가능케 한 것이다. 아티스트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 아티스트와 소통하게 되었으며,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예술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실시간(Real Time) 공유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



- 1 에릭 휘태커의 가상합창(Virtual Choir) 〈Sleep〉.
- 2 에릭 휘태커.
- 3 브루클린 박물관의 Crowd-Curated 전시 〈Split-Second: Indian Paintings〉.



발적으로 일어나는 예술 운동도 가능해졌다. 전에 없던 대화가 촉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창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유례 없이 많은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술가와 예술가의 연대, 예술가와 아마추어의 연대를 비롯한 일반 아마추어간의 연대가 확장되었다.

미국의 작곡가 에릭 휘태커(Eric Whitacre)는 전 세계에서 참여한 단원들로 가상 합창단을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가상합창(Virtual Choir) 공연을 한 바 있다. 합창단 개개인이 올린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낸 첫 가상합창곡은 12개국 185명의 단원이 참여해 조회수가 두 달 만에 100만 건을 돌파했다. 두 번째 합창곡 〈Sleep〉(ericwhitacre.com/the-virtual-choir)은 58개국 2,052명의 참가자로 확대되며 시공의 제약을 넘어서는 협업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런 아마추어간의 연대를 통한 협업 작품 외에도 전문가와 아마추어간의 연대를 통한 프로젝트도 나타났다.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은 2008년 관객이 직접 전시할 사진을 올리고 선택도 했던 〈Click〉전에 이어, 2011년 7월 〈Split-Second: Indian Paintings〉(brooklynmuseum.org/exhibitions/split-second) 전시에서는 크라우드 큐레이팅(Crowd-curation)을 선보였다. 관객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박물관 전시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전시로, 말콤 글래드웰의 책 〈Blink〉에서 영감을 얻어 관객과 전문 큐레이터의 공동 협업 전시를 만들어냈다. 먼저 브루클린 박물관의 영구소장품을 정보 없이 탐색하고(Explore) 작품을 고르고(Select) 작품에 대한 생각을 적는(Write) 단계를 거친 뒤, 박물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작품을 다시 선별(Rate)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친다. 온라인 평가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해 처음 가진 생각과 박물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생각의 차이를 반영하여 전시 작품을 선별하고 관객이 참여한 내용을 반영하는 전시를 시도했다. 이러한 협력은 문화적 배경,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와 예술가가 서로

에게 영향을 주면서 독창적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만큼이나 '과정'에도 가치가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

관객의 변화, 관조에서 개입으로

창작자 뿐 아니라 관객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유례없는 문화의 접근성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관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The U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매체가 관객을 변화시키고 작품의 일부가 되어 예술활동을 확장시키는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2010년, 미국인이 전자·디지털 매체를 통해 어떻게 예술활동에 참여하는가를 연구한 〈Audience 2.0: How Technology Influences Arts Participation〉(nea.gov/research/new-media-report)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53%, 1억 1,800만 명)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예술에 참여하고, 미국 성인의 1/3 이상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벤치마크(Benchmark)'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예술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디지털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이다. 수용하고 관조하던 관객이 디지털을 통해 참여하고 개입하는 관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마추어의 적극적 참여의지는 기획, 제작, 홍보 등 전 영

역에서 나타나면서 창작 외에도 재원 조성, 작품 제작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직접 작품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기호에 따라 사람을 불러 모으고, 같은 기호와 취미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문화적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극적인 관객의 개입은 창작의 영역에서 협업 예술을 이끌었고, 재원 조성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새로운 펀드레이징의 길을 열기도 했다.

예술단체의 변화, 전달에서 참여로

관객의 변화는 예술단체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여 개방과 참여의 가치를 내세우며 조직의 비전을 정비하는 등 문화예술 단체의 움직임이 해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관객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한 것이다. 예술단체는 작품 창작 과정이나 예술가의 살아 있는 목소리, 예술현장의 풍경을 담아 유튜브 등의 동영상 채널, 플리커(Flickr) 등의 사진 공유 채널, 팟캐스트(Podcast) 등의 콘텐츠 유통 채널을 열어 '공유'하기 시작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산과 소셜미디어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가치사슬인 창작, 매개, 향유의 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문화예술계를 흔들었다.”

을 통해 솔직한 목소리를 내며 '개방'하고 관객, 예술가와 직접적인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소통'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에서 함께 이야기할 소재가 되었으며, 낯선 예술단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매개체가 되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단체의 소식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종이로 만들던 각종 브로슈어는 디지털 브로슈어로 대체되어 디지털기기를 통해 손안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오전 제작발표회 생중계, 오후 출연배우 실시간 인사, 저녁 리허설 현장 사진 업로드 등 문화예술현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24시간 생중계되었으며, 극장 문이 닫힌 시간에도 작품이 없는 기간에도 예술단체들은 관객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연장 외에도 디지털 환경을 통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창구가 다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관객과 예술을 만나게 하려는 예술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났던 예술체험은 영상과 글로 기록되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고, 단체와 예술가들이 직접 관객과 소통하면서 예술현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완성된 작품만을 전달받던 관객은 작품의 준비과정을 함께 지켜본다. 이후 다양한 관객과 만나 다양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작품과 연결고리를 맺고 보다 가깝게 예술과 하나가 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관객이 이끄는 문화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되고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졌다. 예술가와 관객이 직접 대화하고, 예술가는 예술가와 보다 많이 교류하며, 예술단체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를 네트워크로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문화예술생태계의 일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고 모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다시 청춘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했던가.
문화예술을 만나 소소한 일상은 행복이 되고
가슴속 꿈은 아름다운 도전이 되었네.

은빛 청춘들이여,
인생은 아름다워라!

__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수료식



1

재앙에 직면하는 네 개의 도시

서울시립미술관 〈시티넷 아시아 2011〉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시티넷 아시아(City_net Asia)〉전은 아시아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기 기획전이다.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시티넷 아시아 2011〉전은 아시아를 관통하는 시의적 주제로 '재앙'을 선택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아시아 각지에서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를 휩쓸었던 쓰나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중국 사천성의 대지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방사능 누출 등의 후폭풍,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들이닥친 수해 등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었다. 동시에 태국과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요구와 유혈 사태, 전쟁 등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위적 재앙으로서 천재지변 못지않은 규모의 희생과 문명 파괴를 야기했다.

이러한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앙 앞에서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인간의 극적인 노력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유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있었던 잔혹한 인간성 상실의 현장들이 수많은 서구의 예술가와 지식인들에게 인간 존엄성에 관한 더 깊은 사유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시티넷 아시아 2011〉에서 재앙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시대 아시아 현대미술의 면모를 모색한 것은 아시아 미술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시는 일본 가나자와,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서울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묶어 구성됐다. 각각의 도시에 존재하는 미술관이나 비영리 전시 공간, 아트센터 중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교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의 큐레이터가 각 국가별로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여 전체 전시를 이루는 방식이다. 각각의 기관들은 재앙이라는 대상이 가진 다양한 층위와 현실적 맥락 등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작가들을 선정했다. 각각의 도시별로 묶인 작품들은 재앙의 물리적 혹은 정치적 측면, 재앙에 맞서는 인간의 태도, 재앙이 야기하는 내적 혹은 외적 상처와 그것의 극복 등 다양한 맥락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다층적 사유들을 조명했다.

일본 가나자와, 발생론

중중 지진이 발생하고, 침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존하는 일본의 국민들은 자연 재해의 극한적 상황에 당당히 맞서는 초인적 면모의 주인공들을 선호해왔다. 재난에 대한 극

복의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강도의 지진에 더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겹친 2011년 3월의 기억은 공포와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극복에의 의지로 연결되는 전형성을 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사고의 계기를 제공했다. 물론 일본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재앙에 대응하는 면모를 과시했지만, 그 공공 제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은폐성, 그리고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나자와 섹션의 기획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만 편중된 나머지 '우리가 본질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 관한 반성적 성찰의 기초를 주된 테마로 제시했다. 이는 집단적 윤리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이번 재앙이 가져다준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가나자와의 미술작품들은 발전과 확장의 신화에 함몰되어 우주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살아온 20세기에 대한 비판적 어조,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힘으로서 상상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치하루 시오타의 설치작품 〈During Sleep〉은 인지 불능한 수면상태에 신체가 함몰되어 있는 와중에, 과도하게 확장되어 공간을 다 채워버린 검은 선구조들이 신체를 가뒤편리는 공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켄지 야노베의 해를 바라보며 절을 반복하는 로봇 또한 의도된 목표만을 주시하는 맹목적 상황을 흥미로우면서도 공포스럽게 묘사한 것이다. 사부로 오타의 우표 작업은 일본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동물들의 이미지를 우표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며 과거의 처참한 기억에 대한 환기를 시도한다.

태국 방콕, Bang-kok 2011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방콕은 홍수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가옥이 물에 잠겼으며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2011년 여름 서울을 강타한 물난리에서도 알 수 있듯, 과도한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미비한 사회기반시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구조적인 원인 또한 빈약한 사회기반시설과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첨예한 정치적 충돌에 더하여 전통적 가치체계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익숙하게 들리는 이러한 상황은 비단 방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흔

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짐 톰슨 아트센터의 디렉터는 전직 총리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태국의 만성적 정치 분열을 풍자하기 위해 방콕이라는 도시명을 'Bang'과 'kok'으로 분리시킨 단어를 제목으로 조어했다. 방콕 섹션을 압도하는 것은 나빈 라완차이쿨의 대형 회화이다. 한국 민중미술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거대도시 방콕의 면면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제국주의의 포탄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진 채, 탐욕스러운 자본이 난무하고 말초적인 성과 유흥으로 점철되어 흡사 도시 전체가 거대한 매음굴처럼 변해버린 방콕의 처참한 현실을 비판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의 거시적 풍경을 매체를 달리하여 표현한 것으로 솜똥 찢기손풍세의 싱글채널 작품을 거론할 수 있다. 방콕의 현대적인 면모를 묘사하듯 고층 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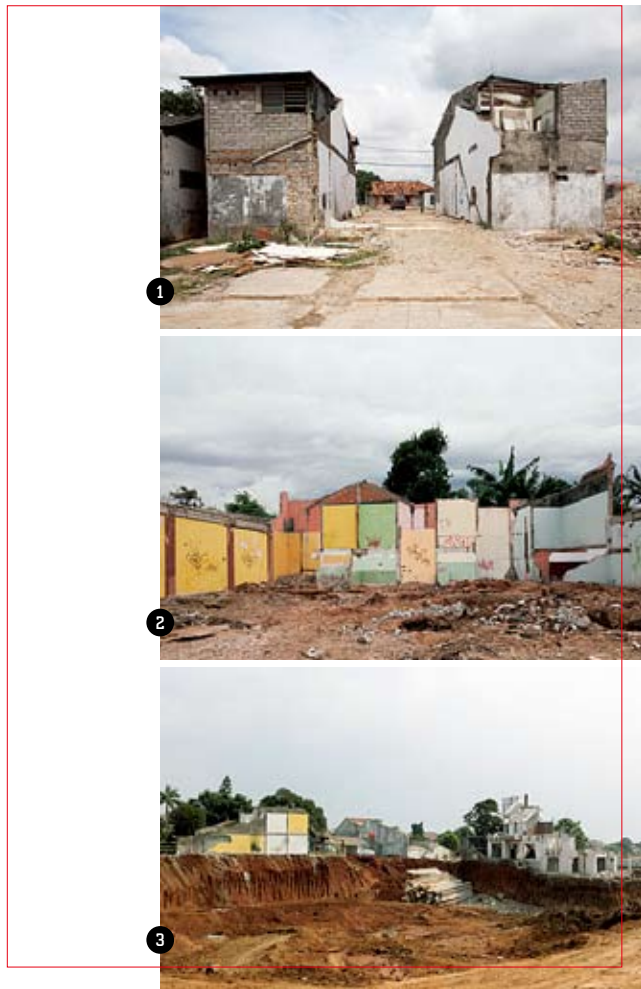


1 이문주 〈유람선〉, acrylic on canvas, 195×360cm, 2009.

2 켄지 야노베 〈Viva Riva Project-Standa〉, mixed media, installation, 300×200×200cm, 2001. Courtesy of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3 사부로 오타 〈Post War 60 Atomic Bomb Victim〉, paper print, 26.8×15.7cm each, 2005.

4 나빈 라완차이쿨 〈Lost in the City 2〉, acrylic on canvas, 220×1624cm, 2006.



1·2·3 아리 센디 〈Trace of Homes〉, photo series, 60×80cm each, 2009~2011.
4 박재영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Y씨의 증언〉, 버려진 기계, LCD 패널, TV, 가변설치, 2011.

의 스카이라인이 서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배경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영상은 얼마 후 운집한 군중들이 시위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차분하고 건조한 도시의 분위기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로 인해 점진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되며 그 이후에 있을 격전을 암시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기

건물과 사람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도시에서는 재앙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 극복의 과정 또한 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루앙루루파의 기획은 재난에 직면한 도시민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업은 대부분 전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대형 설치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 작품들은 도심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저가의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많은 인구와 취약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취하는 생존 전략은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만들어낸다. 자카르타에서 온 작품들은 이 생존의 요구에서 비롯된 독특

한 문화를 다각도로 사유하고 또한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사유의 결과를 보여준다.

종이상자 등으로 조악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만들어진 집과 대형 구조물들, 생활의 다양한 오브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설치물은 전시 공간 전체를 도시 내 어느 한구석으로 변화시킨다. 여기서 작품과 작가 간의 개념적 경계는 큰 의미가 없다. 아리 센디의 사진작업이 실재하는 다양한 외양의 집들을 촬영하여 기록한 것처럼 대상 그 자체의 직설적 묘사가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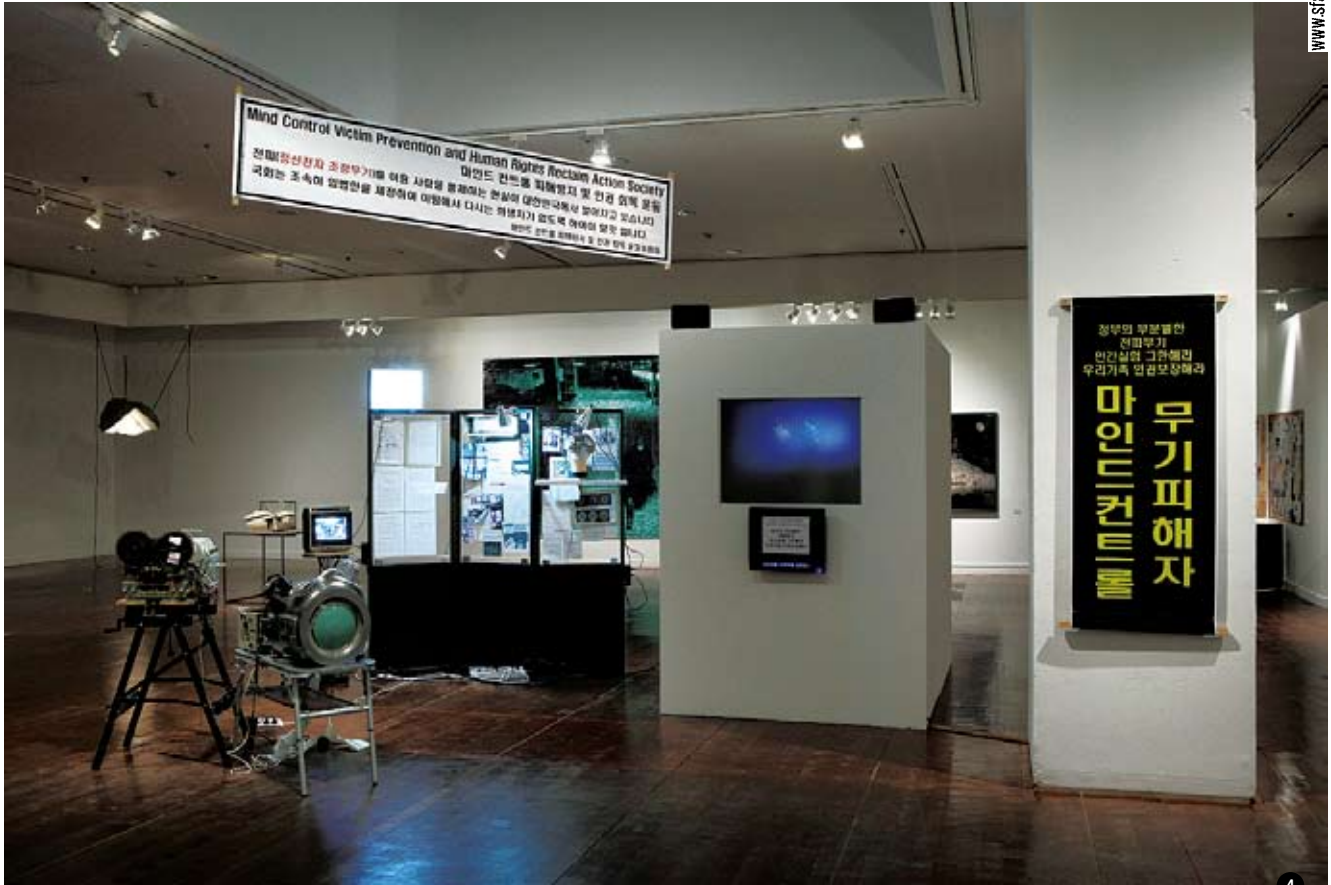
대한민국 서울, 조용한 충돌

위에서 언급한 각 도시들은 각각의 로컬리티에 기반하여 재앙에 대응하는 시선을 보여주었다. 서울 섹션의 기획자는 서울의 예술작품이 보여주는 특징으로서 한국 사회에 내재한 갈등과 충돌에 주목한 것 같다. 이 갈등은 전체의 안정을 담보하는 질서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으로서 개인과 집단 간의 불편한 관계를 암시한다. 이것은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특정한 성향이나 의지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폭력 앞에서 낙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존재론적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의 직면은 개인에게 재앙과도 같은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며, 이는 결국 다시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환원되는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전시의 기획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박재영의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Y씨의 증언〉을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과거 ‘악마의 기계’라는 별명으로 존재했던 마인드 컨트롤러의 폐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가변크기의 설치 형식으로 구현했다. 유사 과학과 허구적 시나리오라는 요소를 조합하여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그 강력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또한 표현주의적인 기법이 눈에 띄는 이문주의 회화는 처참한 파괴의 현상이 존재하는 도시의 모습과, 그 은폐된 현장 옆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의 모습을 통해 개인이 목도하고 체험하는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교류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

동북아의 중앙, 대한민국 서울에 자리한 한 미술관이 인근의 아시아를 교류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 전시 또한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고 아시아 도시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분투한 기획진의 노고가 엿보였다. 그러나 행위의 현상적 측면을 넘어 이러한 네트워킹의 행



서울에 자리한 한 미술관이 인근의 아시아를 교류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 전시 또한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고 아시아 도시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분투한 기획진의 노고가 엿보였다.

위가 거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의식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시티넷 아시아>전에 대해 “서구 중심의 미술 무대에 아시아의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고, 현대미술에서 아시아 미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취지를 보면 현대미술계의 주류로서 ‘서구’라는 대상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소개’와 ‘위상 확보’라는 방법론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의례적인 설명문의 일종으로서, 그것을 전시의 미시적 분석 도구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 혹은 그것을 둘러싼 한국미술계 주류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결국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동반하여 서

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권역’으로 편입하겠다는 목표의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적 사고가 충분히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시티넷 아시아>전의 의미와 가능성은 현대미술의 국제교류에 대한 서구 편향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기존의 낡은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범주의 축을 구성한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아시아를 서구 중심의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주류 자체의 권위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시아의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아시아의 철학과 역사에 기반을 두고 서구의 주류 미술에 대해 대안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 현대미술의 교류를 위해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시아의 시대정신을 성찰하는 적절한 기회로서 <시티넷 아시아>전이 가진 막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사유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의 대한민국 무엇을 이야기할까

2011 문화예술 뉴스 베스트 10

문화는 언제나 흐르고 변화해간다. 문화의 물길은 움푹 팬 장르가 있으면 채우고, 넘치면 또 다른 장르로 스며들어 섞이고 퍼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2011년 한국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새롭게 흘러가며 변화했을까. 올 한 해 한국의 문화예술계, 그리고 한국문화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진 반갑고 새로운 문화예술 소식 중 베스트 10을 뽑아봤다.



01 <마당을 나온 암탉>, 한국 애니메이션의 숙원을 이루다

한국 인력들이 외국 애니메이션 작업을 맡아 외화를 벌어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 때 배운 기술로 TV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애니메이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극장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제작되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한국 애니메이션은 침체기를 겪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 흥행 최고기록이 1970년대 대표작인 <로봇 태권V>를 다시 개봉해 거둔 관객 70만 명에 머물러 있었던 점이다. 이 기록이 올해 '후련하게' 깨졌다. 황선미의 소설이 원작인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단숨에 20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새 기록을 세웠다. 뛰어난 소설을 활용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소재와 장르를 다양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만 명이라는 기록도 작품 완성도에 견주면 오히려 아쉬운 성적이다.



02 낭독의 재발견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지만 직접 문화 행위를 하는 것은 소질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재능에 상관없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위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글을 직접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사람들과 함께 읽고 나누는 낭독회가 소리소문없이 공감을 얻으며 퍼져 나가는 흐름이 올해 특히 두드러졌다. 수많은 새로운 매체와 즐길 거리가 등장해도 책읽기의 매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문화재단의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이 꾸준히 마련되고 연희문학창작촌의 목요 낭독극장, 남산예술센터의 상주작가 낭독 공연 등 다양한 낭독회가 열리면서 인터넷과 영상 이미지의 시대에 다시 낭독이 재발견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03 K-팝, 아시아 넘어 세계로

올해 한국 대중음악계에선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세시봉' 바람과 <나는 가수다> 돌풍이 엄청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K-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였다. 한국형 기획상품인 아이돌 그룹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며 인류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상반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가 고조됐고, 이어 미국과 중동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국 음악 공연이 관객을 몰이들이며 바람을 이어갔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다양한 볼거리, 트렌드에 충실한 음악으로 무장한 한국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대중음악 아이콘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 SM엔터테인먼트



© 박영채

04 아파트는 가라, 단독주택의 가치 재조명

아파트가 한국 주거형태를 장악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민을 위한 도시형 단독주택이 '문화적' 관점으로 재조명받은 한 해였다. 아파트에 질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치보다 주거 자체를 위한 단독주택의 가치, 크고 비싸지 않은 작은 집의 가치가 새삼 관심으로 떠올랐다. 한국형 서민용 도시단독주택으로 시도된 '땅콩집'이 화제가 되면서 단독주택 바람이 불었고, 친환경적인 목조주택을 짓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며, 부모와 자녀의 추억을 담아내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단독주택의 재발견'을 통해 퍼져나간 한 해였다.

05 문화 격차 해소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대

문화가 시민들의 삶을 채우고 달래주려면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문화 발전을 위해선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 늘어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턱박하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는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다양한 문화공간이 여럿 생겼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창작공간'으로, 아이들이 문화를 체험하는 장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공연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흥은예술창작센터'도 새로 문을 열었다. 마포구 성산동의 동네극장 '성미산 마을극장'도 1년을 맞으며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경기도 구리에선 주민들이 직접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네카페 '더 숲'이 문을 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확대되길 기대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06 <엄마를 부탁해>, 세계를 울리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거둔 성과는 문학계의 뉴스를 넘어 한국문화의 일대 '사건'이었다. 국내에서 170여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가 미국시장에서 <플리즈 룩 애프터 맘 Please Look After Mom>으로 번역되어 단숨에 초판 10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그동안 안방에만 머물러 있던 한국문학이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낸 최초의 일이다.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라는 국적을 초월하는 보편적 소재와 주제가 한국적 현실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도 공감을 얻어낸 결과였다. 앞으로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을 기대하게 하는 청신호다. <엄마를 부탁해>는 해외 각국의 주목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다시 관심을 이끌어내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또 한 번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07 오디션 프로그램, 온 국민을 사로잡다

방송계에선 그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절정을 이뤘다. 케이블 방송의 <슈퍼스타K>가 불을 지피고 공중파의 <위대한 탄생>이 기세를 끼얹은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은 전국에서 200여만 명이 온갖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망했을 정도로 대단했다. <아메리칸 아이돌> 등 미국을 휩쓴 오디션 프로그램 트렌드가 한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숨에 전국이 열광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한국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힘든, 대중문화 스타가 되는 과정에 평범한 시민들이 도전해 성취하는 모습이 묘한 공감

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꿈을 향해 다가가는 출연자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대리체험하며 감동했다. 또한 경쟁에 지친 대중들이 오

디션 속 경쟁에 몰입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의견도 많았다.



08 한국만화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작품 돌풍

한국 만화계에서 올해 화제였던 작품은 단연 <신과 함께>와 <살인자ㅇ난감>이었다. 그동안 한국만화의 스펙트럼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래서 한국만화판 전체의 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만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는 저승세계라는 소재를 현대에 접목시켜 '한국적 문화 아이콘'을 만화에서 잘 활용한 점이 돋보였다. 지옥의 형벌을 현대식 재판 과정으로 바꿔 권선징악이란 고전적이지만 공감 가는 주제를 잘 풀어내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꼬마비 노마비 작가의 <살인자ㅇ난감>은 오타가 난 듯한 독특한 제목처럼 독특한 구성과 파격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 귀여울 정도의 단순한 그림으로 충격적인 범죄를 실감나게 그려내 단숨에 한국 스타일러 만화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09 멘토 저자들, 청춘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다

100만 부 넘게 팔린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상반기 내내 베스트셀러 순위를 독주했고, 하반기에는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 혁명>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랐다. 그동안 청년층이 주로 사는 자기계발서가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참고서형 책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힘들게 출발해야 하는 청년세대에게 선배로서 용기를 북돋우며 본질적인 조언을 건네 공감을 얻어내는 멘토형 책이 출판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젊은 층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닥치고 정치>나, 공감을 자아내는 짧은 문장의 힘을 보여주는 '어록'을 모아 분석하고 소개한 책 <공감의 한 줄 어록>도 공감을 갈구하는 요즘 독자들의 갈망을 반영한 책이라 할 수 있다.

10 문화예술 프로슈머가 늘어나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시민들이 단순한 문화 소비자를 넘어 주체적으로 문화 창작에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 곧 '프로슈머'로 바뀌어가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속 대형 쇼핑몰 안에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드는 가든파이프의 '문화숲프로젝트'는 무료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는 한편, 미술 체험 교육이나 신예 예술가와 문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안에 마련된 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의 창작마당인 동시에 생활 속 현장에서 시민들이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성북예술창작센터도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시도 중이다. 이런 각종 프로그램의 등장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소비자를 더욱 늘어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막막한 그들의 향해

연극 〈해무〉

●
 짙은 암전 속, 강신일의 나지막한 내레이션으로 〈해무〉는 시작된다. “바다에서 만난 짙은 안개를 해무라 한다. 바다에서 바람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안개다. 파도에도 길이 있고 바람에도 길이 있으나 안개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짙은 해무는 어부들의 조각난 마음은 물론 바다와 하늘의 경계조차 허문다. 남은 것은 한없는 무기력과 끝을 알 수 없는 정체와 고립,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그것이 해무가 주는 공포다. 어둠 속에선 불을 밝히면 되지만 빛 속에

선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시작부터 무언가 가슴이 턱 막힌 듯 막막한 기분 속에서 무대가 열리고, 첩첩이는 파도그림을 배경으로 거대한 ‘전진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공미리잡이 배인 전진호의 선원들은 조업이 순조롭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조선족의 밀항을 돕기로 한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 즈음 해경이 전진호에 접근해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배는 저 멀리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바다로 방향을 돌린다. 선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조선족은 어창에서 단체로 질식사해버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전진호의 선원들이 하나 둘 미쳐가면서 무대 위에는 ‘무간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처음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은근하게 무대 위에 스며들던 안개는 극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짙어져 결국 전진호를 해무 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만든다. 자옥한 바다안개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선원들을 서서히 미치게 하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마저 질식시킬 듯 무섭게 뿔어져 나온다.

이 작품에서 해무는 물리적으로 배를 가뒤퍼린 짙은 바다안개를 의미하는 동시에, 앞에는 해경이 기다리고 뒤에는 태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진호 선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은유한다. 사소한 유혹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물처럼 촘



춤하게 짜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점점 더 자신을 꽂꽂
업어매는 전진호 선원들은 마치 그리스비극의 주인공처럼 욕망
과 운명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민정의 탄탄한 극작과 안경모의 설득력 있는 연출, 거기에
배우들의 치열한 열연이 더해진 <해무>는 초연 때부터 한국 리얼
리즘 연극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미 여러 차례 재공연하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
은 바 있기에, 이번에 새로 오른 <해무> 공연의 관극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밀도 있는 소극장 공간에서 공연했던 이 작품이 대학
로예술극장이란 대극장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밀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그리고 초연과는 달리 이제 영화, 드라마로 대중들에
게 널리 알려진 배우 송새벽이 다시 복귀한 무대에서 어떤 연기
를 펼칠 것인가.

초연 당시 자그마한 연우소극장을 한 척의 '배'로 만들어 극장
에 들어선 관객 모두가 전진호의 지옥 같은 항해를 함께하게 만
들었던 <해무>의 공간 콘셉트가 이번 대극장 무대에서는 저 멀리
망망대해에 갇혀 있는 한 척의 배, 그리고 그 위에서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약간 들어올려진 뱃머리와 갑판이 상당한 높이인데다 가파르
게 경사져 있어 그 자체로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전진호 선원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다. 자연스레 무대 바닥은 배의 아래쪽인
선창과 기관실로 사용함으로써 무대 곳곳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돋보였다. 대극장의 회전무대를 활용해 폭풍으로 흔들
리는 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점과 파도소리, 바람소리
등 음향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전진호의 비극을 더욱 규
모 있고 실감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대극장으로 옮겨
가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들도 눈에 띈다. 회전무대를 사용하면서
암전이 잦아지고, 회전 시 객석으로부터 멀어진 뱃머리 쪽 배우
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점은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빈틈이
었다. 극한의 상황 속 긴박한 무대 한구석에 비밀스레 보여져 오
히려 애썼음을 자아냈던 동식과 홍매의 정사 장면 역시 이 거대
한 무대에서는 미미한 감이 없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배우의 힘

사실 소극장의 밀도 있는 공연을 대극장 무대로 옮기는 것은 보
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물리적, 정서적으로 확장된 스케일을
채워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자칫 극적 긴장감과 감정
선이 느슨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해무> 공연은 공연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많은 악조건에도 초연
당시의 먹먹한 감동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조



금 산만하게 느껴진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는 갈수록 더 끔
찍해지는 상황을 힘 있게 몰아 부친 연출력이 돋보였다.

이번 <해무> 공연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극적 긴장감과 감정의
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에 힘입은 바 크다. 대부분 초연 때부터 전진호의 항해에 함
께해온 배우들이 온몸을 던지는 열연(실제로 위태로워 보이는 갑
판 위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뒹군다)으로 인물들의 절망을 치열
하게 그려냈기에, 캐릭터 하나하나의 고통이 생생하게 살아난 것
이다.

오랜만에 무대로 복귀한 송새벽 역시 그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가볍고 코믹한 연기와는 다른, 선 굵고 우직한 연기
를 통해 자신의 뿌리가 연극무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최
근 영화나 TV로 널리 알려진 스타가 연극무대에 서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미 대중에게 익숙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상품성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 그런 면에서 이번 <해무>의 송새벽은 관객의 '기대'보다 연기
의 '진정성'에 무게를 둬으로써 오히려 믿음직한 배우의 모습을 보
여주었다.



시의 소리를 되찾는다는 것

연희문학창작촌 〈詩, 市, 시민들〉
& 일마 라쿠자 초청 낭독회

● 낭독이 주는 매력은 무엇인가. 책으로 경험하고 상상하던 것을 무대를 통해 만난다는 것, 무엇보다 문자언어를 소리로 직접 만나는 상상함이 아닐까. 그 상상함을 더욱 배가시켜주는 무대, 관객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 연희문학창작촌의 2011년 마지막 낭독극장 〈詩, 市, 시민들〉에는 그동안 관객으로 참여 하던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기존의 낭독극장과 다른 형식이어서일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서서 지켜보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낭독극장은 연희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불빛을 받으며 연주가 끝나자 문단의 느낌보 시인으로 불리는 문태준 시인과의 대화가 이어졌고, 외국의 어느 바닷가에 서서 영감을 얻었다는 〈모래언덕〉을 낭송하였다. 시민에게 문태준 시인의

낭송을 들어본 소감을 물어보자 “시간 속에서 소멸해가는 인간의 고독을 잘 드러낸 것 같아 공감했다”고 대답했다. 프랑스 시인 구르몽(Remy de Gourmont, 1858~1915)의 시 〈낙엽〉 낭송이 이어졌다. 낭송과 함께 자막이 스크린을 통해 올라갔다. 시란 근본적으로 번역이 불가능한 장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는데, 외국시를 직접 들어보니 언어의 질감이 새롭게 다가오는 듯했다. 한국시를 외국어로 읊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에 대해 시사해주는 면이 있었다.

동화구연을 한 시민은 선배의 영향으로 동화구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지금 객석에 앉아 있다고 했고, 사회자는 객석에 있는 시민의 선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객석의 시민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많은 참가자들이 연희문학창작촌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창작촌이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즐겁게 지켜보는 중인 듯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뜻밖에도 어린이의 시낭송이었다. 엄마와 함께 참가한 어린이는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하였는데, 낭송 도중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서시〉의 첫 구절이 무엇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을 낭송하자 아이답지 않은 시구에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다.

강남대학교 국문과 학생들로 구성된 시동아리 ‘시나락’의 시극 공연과 이재은 시민 등의 자작시 낭송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말괄량이 삤삤〉 〈한여름 밤의 꿈〉 〈연오세오〉 등에 출연하고, 2011 예정문학콘서트 〈이 세상 속 흑과 백 이야기〉를



1



2

1.2 연희문학창작촌 목요낭독극장

3 연희문학창작촌 일마 라쿠자 초청 낭독회



연출한 성경선이 맡았다. 시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되는 참신한 기획이었다.

방랑은 내 운명

‘오늘의 스위스 문학’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소 낯선 스위스 작가 일마 라쿠자 초청 낭독회도 있었다. 일마 라쿠자는 1946년 슬로바키아에서 슬로베니아인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방랑은 운명적이었을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다 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끝없는 유랑의 삶을 살았던 시인은 무언가 정착하고 싶은 생각에 조그만 사물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산문은 섬세한 언어와 일상의 재발견으로 모자이크된, 오히려 시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지녔다. 산문집 〈수집벽〉은 시인의 성장담을 모아 놓은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기억이 소중해지고 기억과 연관된 과거가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이 책을 쓴 뒤 유년기에 대해 정리가 되어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인의 기억과 방황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탄생했다.

일마 라쿠자 시인의 시와 산문을 번역한 김광규 시인은 그동안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여러 번 낭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광규 시인은 한국시의 깊이를 한 차원 끌어올린 시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낭독회에 대해 “언어는 소리와 뜻으로 된 유기체

다. 오랫동안 문학작품에서 소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소리를 되찾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영인사를 하기도 했던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작가 황학주 시인은 낭독 후 질의응답 시간에 9행시에 대해 물었다. 그것이 스위스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지, 시에 적합한 형식이라 생각해서 쓰게 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일마 라쿠자 시인은 9행시가 전통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며 우연히 저녁에 시를 세 편이나 썼는데 9행시가 나왔다고 한다. 이후 이것이 시의 자연스러운 길이와 형식일 것 같다는 느낌으로 9행시를 쓰게 되었다. 9를 뒤집으면 6이 되고 홀수는 짝수와 달리 짝지을 수 없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숫자에 대한 시인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놓기도 했다.

일마 라쿠자 시인은 연희문학창작촌에 낭독회 2주 전부터 거주했다. 그녀는 입주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 강릉 등에서 여러 번의 낭송행사를 가졌다. 그는 한국의 자연에 매료되었으며 연희문학창작촌에서도 많은 감흥을 받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첫 순간, 아우라가 있는 장소에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사막 안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아요. 소나무, 다람쥐 등 자연이 살아 숨 쉬고 곤충과 새들의 울음이 들리는 곳입니다. 입주기간 동안 몇 편의 시를 썼는데, 제가 이곳에서 시를 썼다는 사실은 이곳이 얼마나 편안하고 특별한 장소인가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마 라쿠자의 시에서 한국의 자연이 어떻게 미학적으로 형상화되는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New York

한식, 뉴욕을 접수하다

맨해튼의 주목받는 한식 레스토랑 & 젊은 셰프들

한류가 대국민 키워드인 시대, 뉴욕에 살다 보니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한류의 인기가 진짜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답은 '네' 그리고 '아니오'다. 예전에 비해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한국문화 마니아도 많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시장도 넓고 다양한 취향이 공존하는 나라이기에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미국에서의 한류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의 그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데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한식이다. 뉴욕에 중 한국음식 한 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미식가라면 한인 2세이자 뉴욕 요식업계의 스타인 데이비드 장의 이름을 기억한다. 물론 뉴욕이 미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코즈모폴리탄 시티' 뉴욕의 실험대를 잘 통과하고 나면 뉴욕이라는 브랜드 덕에 전미로 퍼져나가기도 쉬워진다.

뉴욕에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케이타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맨해튼의 코리아타운과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이다.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부담 없는 퓨전화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반면 플러싱은 한인, 혹은 대만계 중국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기에 한국에서 먹는 것과 다름 없는 맛과 스타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음식도 한류다

최근 뉴욕에서는 30대의 한국인이나 이민 1.5세, 혹은 이민 2세가 문을 연 한식 레스토랑이 각광받고 있다. 위치 또한 맨해튼 32가의 코리아타운을 벗어나 젊은이들의 지역인 이스트 빌리지(데이비드 장의 '모모푸쿠' 시리즈), 안정적인 분위기의 미드타운(후니 김의 '단지'), 화려한 이미지의 트라이베카(임정



1



2



3

1 임정식의 '정식'은 한식과 결합된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메뉴를 선보인다.

2 '모모푸쿠'의 포크 번. © Gabriele Stabile

3 데이비드 장의 '모모푸쿠 누들 바'. © Noah Kalina

식의 '정식') 등으로 옮겨갔다.

음식평론가들이 한국음식을 변형한 가장 좋은 예로 꼽는 데이비드 장의 '모모푸쿠'는 일단 새롭다. 대표 요리인 포크 번은 중국식 전빵 안에 삼겹살, 그리고 오이지와 피클의 중간 정도 되는 짬지가 들어 있는데, 살짝 발효된 중국식 매운 소스를 더해 먹는다. 한국요리 같기도 하고 중국요리 같기도 하지만 딱히 어느 나라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이다.

후니 김의 '단지'는 이미 음식 좋아하는 뉴욕커들에게 꽤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뉴욕을 방문한 김윤옥 여사가 이곳에서 식사를 해 더욱 화제가 됐다. 이민 1.5세인 후니 김은 메뉴를 아예 전통과 현대로 나누었다. 전통 메뉴에는 보쌈, 은대구 조림 등의 요리가, 현대 메뉴에는 일종의 햄버거인 불고기 비프 슬라이더, 김치 베이컨 소

● ‘정식’ 임정식 셰프 “한식의 강점은 새로움이다”

오픈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뉴욕 타임즈〉에 프리뷰가 나가긴 했지만 오픈 뒤 유명 미디어에서 리뷰를 게재한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블로그 등에 실린 개인적인 리뷰는 좋은 편이다. 밥과 국수 메뉴를 내세웠는데 모두 좋아하는 것 같다. 비빔 샐러드, 보쌈과 갈비도 인기다. 한국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다양하지만 손님 대부분은 미국인이다.

뉴욕에서 ‘정식’을 열기까지,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작년 4월에 와서 자리를 얻고 올해 1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사공하는 사람이 디자인부터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처리하기에 오픈 준비가 두 달이면 끝난다. 그에 반해 뉴욕에서는 모두 도맡아 할 수 있는 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처음에 많이 헤매기도 했다. 8~9개월이 소요됐는데, 뉴욕에서 그 정도면 빨리 끝낸 거라고 하더라. 음식점 로고 브랜드부터 인테리어까지 ‘심플리시티’를 콘셉트로 했고 동선은 내가 직접 잡았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여러 번 오픈한 경험이 있어 동선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잘 알겠더라.

서울의 ‘정식당’, ‘안주’만으로도 셰프로서 이미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도 낯선 땅 뉴욕에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리사들에게는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브랜드고 트렌드다. 요리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디자인, 패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부터 뉴욕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이 꿈이었던데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았을 때 뉴욕을 통과해야 다른 곳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멜버른, 두바이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뉴욕에 서울의 ‘안주’ 같은 캐주얼 바를 하나 더 열고 싶다.

뉴욕은 세계 무대다. 한식을 세계 무대에 내놓으면서 느낀 한식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역시 새로움이다. 약점은 개발이 어렵다는 점. ‘정식’의 메뉴를 개발하면서 한국적인 느낌을 꼭 집어넣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음식을 좋아 하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검증된 것은 손에 꼽힌다.

메뉴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

만들고 먹어보고 바꾼다. 영감을 받는 통로는 다양하다. 어린 시절 맛의 추억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큰 아이디어를 좀허가며 구 체화한다. 비빔 샐러드를 예로 들면, 한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가 비빔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를 함께 곁들여 먹는 이탈리아 카프레제 샐러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것과 조합했다. 카프레제 샐러드는 작게 잘라서 다 함께 먹어야 맛이 있다. 비빔 샐러드는 샐러드를 작게 자르고 손가락으로 떠먹으면서 모든 맛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역 파에야 같은 경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의 생일이 1월이어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남은 미역국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소스를 만들게 됐다. 그 소스를 바탕으로 미역 파에야가 탄생한 것이다.



시지 파에야 등 실험정신 넘치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갑구정동에서 ‘정식당’으로 크게 성공한 뒤 최근 뉴욕 요식업계에 뛰어들 임정식 셰프의 ‘정식’은 서양식 최고급 음식점이라는 콘셉트로, 한식 혹은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을 소개한다. 뉴욕에 한국음식점은 많지만 한식을 최고급으로 패키징해 승부를 거는 곳은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60석 정도의 규모에 내부 인테리어나 서비스 모두 최고급이다. 그런 곳에서 한식, 혹은 한식과 결합된 세련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라는 게 임정식 셰프의 설명이다.

TV 요리쇼 〈아이언 셰프〉를 통해 유명해진 음식평론가 제프리 스타인가튼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음식을 변형·개조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면서도 이런 충고를 덧붙인다.

“닉슨이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뒤, 중국은 정부의 지원하에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중국음식에 관해 조사하고 메뉴를 개발했다. 비즈니스 면에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미국 내 중국음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중국 사천 지방의 음식은 정말 훌륭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천 음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미국인이 싫어할 거라는 짐작만으로 사천 음식의 특성을 지워버린 것이 안타깝다.”



Berlin

판소리는 노래로 된 소설이다

판소리 번역하는 독일의 음악평론가, 마티아스 엔트레스

“한국 전통음악은 처음 들 때부터 생소하지 않고 친근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음악으로 서구식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마티아스 엔트레스가 기획하는 연주회는 요구 사항이 까다롭다. 확성기를 쓰지 않으며 아무리 긴 곡이라도 끝까지 연주해야 한다. 음악평론가인 그는 독일 내에서 한국 전통음악 연주회를 기획하고, 판소리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다.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열린 윤이상 사망 15주년 기념 음악회 직전, 그를 만났다. 그는 평론가답게 화려한 언변으로 판소리와 자신의 인연을 쏟아놓았다. 2005년 〈춘향가〉〈수궁가〉〈심청가〉가 수록된 첫 독일어 판소리 번역본을 출간했다. 두 번째 판소리 책을 위해 〈토지〉를 독일어로 옮겼던 한정화 씨와 함께 〈적벽가〉와 〈홍부가〉의 번역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가 처음 판소리를 접한 시기는 1985년이다. 당시 베를린

에서 동아시아 음악과 연극을 공연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다. 그는 이 행사에서 종묘제례악, 가곡, 산조, 판소리, 시나위,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때 〈심청가〉의 한 부분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아름다웠죠. 표현력이 강했어요. 판소리를 처음 접했는데도 듣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그의 첫인상이다.

그는 이미 60년대에 윤이상의 음악을 듣고, 한국 궁중음악이 서양 현대음악과 잘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현대음악은 매우 비슷합니다. 한국 궁중음악은 템포가 느리고, 악기의 소리가 거칠어요. 또 미세한 톤의 효과와 철학적 배경이 있지요. 특히 판소리는 태고의 인간적 표현이에요. 어린이가 우는 소리와 같다고 할까요. 통증을 느끼면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는 전통음악 공연을 찾을 때마다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 곡의 부분만 들려주거나 확성기로 소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30분이 넘게 걸리는 시나위 전



2



3



4

- 1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전통음악 연주회. © 국립국악원
- 2 2009년 판소리 독일 투어. © 도로테아 서
- 3 마티아스 엔트레스 독일 내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 4 독일어로 출간된 판소리 책

곡을 5분만 연주하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 그는 “청중들이 음악을 듣고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5분 정도의 견본 연주로 진정 음악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라며 전곡 연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들이 판소리에 반한 이유

그가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긴 곡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 것이었다. 당시 그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획기적이었다. <여창가곡> 전곡을 연주했다. 또 황병기 선생이 직접 <가야금산조>를 연주하기도 했다. 독일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음악은 판소리였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 몇 명이 와서 “판소리 완창에 다섯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

도 지루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판소리 공연 때 스크린에 독일어 자막을 띄웠는데, 연주를 들은 이들은 “자막 덕분에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며 좋아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엔트레스는 번역작업을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공연 때 <심청가> 부분 번역을 맡았던 번역가와 함께 판소리 세 작품을 번역해 출판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한국 전통음악 연주회를 무대에 올렸고, 2009년엔 판소리 <수궁가>를 독일 전역에서 공연했다. 관객들의 반응은 예외 없이 폭발적이었다. 모두 감격해 소리치며 큰 갈채를 보냈다. 특히 산조와 시나위 공연에서 사람들은 “이건 재즈”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엔트레스는 시나위가 즉흥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곡이라고 본다. 그의 신념은 확고하다. “한국 청중들은 판소리나 영산회상 전곡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요구수준은 높습니다. 콘서트를 해도 전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유럽의 청중들은 음악 견본이 아니라 음악 자체를 원해요.”

한편 그는 판소리라는 문학적 형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판소리는 ‘노래로 된 소설’이다. “판소리는 연극도 아니고 오페라도 아닌, 서사적 노래예요. 판소리 소리꾼이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흥부가>의 박을 쪼개는 장면에서 많이 웃곤 합니다. 노래를 들을 뿐이지만 오페라나 영화처럼 이야기가 눈앞에서 재현되는 체험을 하는 거지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할까요.” 처음 판소리를 들었을 때는 음악 자체에 끌렸고, 그 내용을 알게 된 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감동했다. “독일인에게 판소리는 새로운 형식의 문학입니다.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고,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행사 기획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다. 5년 전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지만 아직은 서툴다. 투어 중 교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난 5월 베를린 달렘박물관에서 있었던 국립국악원의 민속악 공연에서는 박물관을 비롯해 한인회, 한국문화원, 독일서부방송국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까지 판소리는 독일에서 민속 박물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됐다. 하지만 그의 포부는 더욱 크다. 베를린의 주요 극장에 판소리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명도가 높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더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당창작아카데미
프로젝트 살림 <2011.12.24. Dinner>

흙으로 빚은 나의 분신



● 흙과 물과 불의 만남. 만드는 이의 손길마다 각기 다른 느낌과 개성으로 살아나는 도자기는 접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 제 손으로 직접 빚어낸 형상 위에 스스로 가장 어여쁘다 여겨지는 무늬를 새겨 넣는 일은 따뜻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경험이다. 그렇게 탄생한 작은 그릇 한 점은, 이름난 어느 예술가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흙덩이 하나를 받아든 마음은 왜 이리도 술렁이며 벅차오르는가? 그것은 촉촉하게 찰진 한 덩어리의 가능성, 이제 내 손을 통해 탄생하게 될 '이 세상 단 하나의 의미' 앞에서의 막막함이에요, 떨림이었다.



도예작가 석승현

“도자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34호 작가. 신당창작아카데미 34호실에서 입주 작가로 2년째 살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다. 흙 작업으로 얼룩진 앞치마와 생머리 짙은 묶은 모습이 여전히 학생 같은 인상이지만, 경력 11년차의 도자 작가로 맹렬히 활동 중이다. 그간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을 하고 개인전시회도 여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도자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그는 실용적인 생활도자부터 디자인 공예품까지, 주로 자연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신당창작아카데미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강좌도 진행 중이다.

“글쎄요, 왜 도자가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끌렸고, 그래서 시작했고,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니 계속 더 깊이 빠져갈 뿐이라고 말할 밖에요.”

이번 <2011. 12. 24. Dinner> 프로젝트는 그동안 느꼈던 일회성 작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화과정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하나의 완결된 세트로 경험해보는 도자의 세계. 참가자들은 기초적인 도자 기법을 경험하고, 자신의 식탁을 직접 꾸밀 수 있는 실속 있는 결과물까지 얻게 된다.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생활자기부터 각종 장식품,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요.”

그는 흙이 전하는 따뜻하고 정서적인 자극, 그리고 도자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은 현대인들에게 도자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일상 속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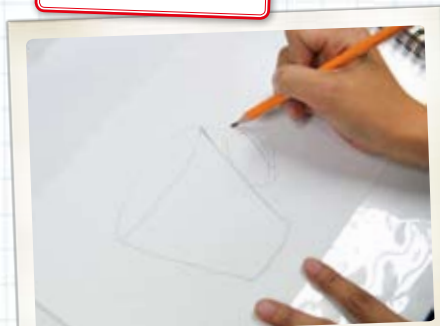
특별한 크리스마スイ브를 상상하는 시간

흙을 조물락거리며 뭔가를 만들어본 기억이 언제였더라? 초등학교 미술시간의 ‘찰흙 만들기가 어렵듯이 떠오를 뿐, 강사가 나눠준 한 분의 흙 앞에서 잠시 막막해졌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는지, 딸부잣집 넷째 딸로 자라는 동안 손재주 좋다는 말을 더러 들은 기억이 있다. 추석 전날 송편을 빚으면 “시집가서 예쁜 딸 낳겠네”라는 칭찬도 들어본 나다. 어쨌거나 손재주와 관련된 일을 직업 삼지도 않았고 예쁜 딸은 커녕 안 예쁜 딸도 없이 아들 하나 달랑 낳고 사는 나로서는 도자기라는 걸 만들어보겠다고 앉은 이 시간 자체가 낯설고 흥미로운 도전이다.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체험 프로그램. 게다가 주제가 ‘크리스마スイ브의 저녁식사’라니! 잊고 지냈던 로맨틱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를 울컥 솟아나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인 도자 기법

인 판 작업, 코일링 성형, 속 파기 등을 이용해 식기와 소품을 제작한다. 총 10회의 강의가 끝나면 2인 기준 테이블웨어 세트가 완성된다. 머그컵 2개, 큰 접시 1개, 개인접시 2개, 양초 홀더 2개, 샐러드볼 1개, 작은 볼 2개에 수저받침까지. 말만으로도 뿌듯한 ‘한 살림 장만 프로젝트’다. 두 개의 작은 촛불 옆에 절갈하게 차려진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식사. 이 계절에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 가운데 으뜸이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간까지 전시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라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업으로 머그컵을 만들기로 했다. 과연 상상 속의 아름다운 크리스마スイ브에 걸맞은 작품이 나올 것인지가 걱정인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만드는 과정



1 작업에 들어가기 전 만들고 싶은 컵의 모양을 그린다.



2 컵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고, 컵의 바닥면을 만들어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3 흙가래를 빚는다. 손가락으로 흙을 밀어 고르고 길게 만든다.



4 흙가래를 바닥면에 올려 붙이는 과정.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붙인다.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강사는 만들고 싶은 머그컵의 디자인을 먼저 그려보라고 했다. 뭘 만들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갖고 싶었던 컵이 하나 떠오른다. 스무 살 시절, 수업 도자기 코너에서 보았던 컵. 탐이아 났지만 가난한 대학생 신분으로는 어림없는 가격에 놀라 조용히 포기해야 했던, 조금은 큼직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커피잔이 지금 떠오른 것이다. 다행이다. 오늘 그 컵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될 테니.

맨손에 와 닿은 흙이 말을 걸어왔다

원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자 손길이 좀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흙 한 줌을 뚝 떼어 동그란 컵 바닥을 먼저 만들었다. 말랑말랑한 흙의 촉감을 느끼며 밀고 다지는 작업이야 그리 어려울 게 없다. 가마에서 구워져 나올 완성품은 지금보다 10% 정도 수축된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큰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손잡이도 미리 만들어두라고 했다. 약간은 굳어 있어야 수월하게 붙기 때문이다.

바닥에 흙을 대고 손가락으로 돌돌 밀었다. 이어야말로 어릴 때 많이 하던 흙장난의 기본! 흙의 원초적인 느낌 때문인지, 밀고 굴리면서 굽기를 조절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한다. 온종일 처마 밑에 조르르 말려두던 진흙그릇들, 그걸로 소꿉놀이를 하던 봄날의 따뜻한 햇살,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의 목소리와 말투까지 생생하게 기억났다. 흙이 내게 걸어오는 이야기들이다. 그 아스라한 기억의 끝에 수강생들의 깨알 같은 웃음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머그컵이 되겠어? 국사발이라면 또 모를까.” “그런가? 항아리 아닌 게 다 행이지 뭐.” 인근 황학동의 아파트 부녀회원들로 구성된 8명의 수강생들은 욕심껏 크게 만든 흙판을 보며 껍이나 즐거운 분위기다. 엉악없는 ‘미술시간’, 엉악없는 ‘소녀들의 수다’였다.

손가락 아래 길쭉하게 말리는 흙가래를 손잡이 모양으로 잘라두고, 다시 또 가래를 빚어 밑판 위로 붙이는 작업을 했다. 손끝으로 밀어 흙과 흙이 하나로 붙게 만든다. 둥글게 한 단을 다 쌓으면 다시 또 한 단을 쌓고, 그렇게 원하는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붙여 올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온 신경과 온 마음을 자신의 ‘작품’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몸에도 도공의 피가?

초보자가 만들 수 있는 머그컵. 그러나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어찌자고 컵은 주둥이로 갈수록 대책 없이 확장되고 점점 커져만 가는지.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머그컵은 제멋대로 몸을 불려가는 듯했다. 이 상태라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담아 마실 도구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다들 밥공기, 혹은 국공기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올 것 같은 지경이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동시에 ‘푹’ 하는 웃음이 터져 나온다. “자아, 그러면 이렇게 흙과 흙을 조금씩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붙여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보다는 좀 줄어서 나올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흙을 으르려보는 사람, 망연히 강사의 처분만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해보는 사람 등 가지가지다. 급기야 강사의 개별적인 ‘응급수술’과 ‘지도편달’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수습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하여 다시 분위기는 ‘몰입모드’로 전환이다. 나는 애써 쌓은 두 번째 단부터 뜯어서 다시 붙이기로 했다. 대책 없이 확 벌어진 부분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좀 더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진행했다. 한 바퀴가 다 둘러질 때까지의 두께와 길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한 바퀴를 엮고 나니, 이 정도면 됐지 싶은 정도가 되었다. 조심조심 위아래의 흠을 이어 붙이고, 손가락으로 두께를 가늠하며 일정하게 눌러 다지기도 했다. 어쩌면 내 속에 도공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즐거운 도취마저 느끼며.

그 다음엔 스펀지에 물을 묻혀 표면을 고르는 작업이다. 부드럽게 ‘사악’한 문질러주니 정말 매끄럽게 표면의 주름과 굴곡이 매워지는 게 보인다. ‘도자기 피부’의 진면목을 느끼는 순간이다. 마지막 단을 쌓고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하고, 마침내 손잡이까지 붙였다.

나를 닮은 머그컵 하나

어설픔게 생긴 머그컵을 바라보는 기분이 묘하다. 아직은 생흙의 축축함이 그대로 남은 미완의 작품이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세상의 단 하나뿐인 특별함’이니까. 자꾸만 쳐다보고 괜히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세 시간의 혈투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나의 분신은 정말이지 기특하고 대견했다.

조금 더 수분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화장토를 입혔다. 약간의 옥빛이 도는 색이 입혀지는 걸 보니, 한층 뿌듯함이 더해진다. 사랑하고 애착을 가질 대상으로 피노키오를 만들던 제페트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까? 붓질을 하는 나의 손끝은 알 수 없는 기대와 성취감으로 살짝 떨리기까지 했다.

드디어 화룡점정의 순간. 머그컵에 하나의 표정을 만들어주는 단계다. 나만의 문양을 새겨 넣으라는데, 무얼 그리지? 하트? 영어로 LOVE? 하나 같이 진부하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기분을 그대로 담고 싶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좋아하는 초록의 잎사귀들이 떠오른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의 잔잔한 움직임. 그 싱그럽고 편안한 느낌이라면 좋을 것이다. 칼을 들어 무늬를 새겼다. 앞뒤로 한 장씩 새겨진 잎사귀 두 장. 이만하면 마음에 든다. 건조 후 가마에 넣으면 완성이다.

손잡이 무게 때문인 듯 한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기운 모습. 그러나 이것은 초록의 향기를 머금은 나만의 머그컵이다. 도자기는 만든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는 말이 맞다면,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싱싱한 꿈을 간직한 사람이다. 생애 최초로 만들어본 머그컵이 내게 알려준, 썩 마음에 드는 해석이다.

신당창작아카데미 공예 실림 문화 형성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림>

수업 도자1 <꽃 피는 주방>, 도자2 <2011. 12. 24. Dinner>

강사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 예술가 이진희 · 석승현 (도자) | 대상 인근 지역 주민

일시 2011. 11. 10~12. 15(10회) / 매주 화 · 목요일, 14:00~16:00

문의 신당창작아카데미 운영사무실 (02-2232-8833) | 참가비 무료

글_김수연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프리랜서로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세상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중. 어느새 15년째다.

사진_오계옥 누긋한 일요일 오전의 커피 한 잔을 꿈꾸며 일주일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진가자.



5 원하는 높이까지 올린 후 물 묻은 스펀지로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6 손잡이를 붙이기 전 약간의 스크래치를 주어 표면에 잘 붙도록 준비하고 본체에 눌러 붙인다.



7 화장토를 여러 번 덧칠해서 바닥의 흠이 보이지 않도록 두껍게 발라준다.



8 이쑤시개를 이용해 원하는 무늬를 그려 넣으면 완성. 이 상태로 건조한 후 가마에 굽는다.

Must 7



01 이번엔 좀 센대?

연극 <갈매기> | 11월 25일~12월 11일 |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 02-766-6007

안톤 체홉의 <갈매기>만큼 무대에 많이 오른 작품이 또 있을까. 그래도 이번 <갈매기>는 다르다. 강렬하고 역동적이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는 젊은 감각이 돋보인다. 깊이 27m의 웅장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악기 선율과 왈츠의 향연이 기다리고 있다. 연극 <도화만발>의 무대 디자이너 정승호가 참여하여 더욱 특별하다. 대학로의 떠오르는 젊은 배우 박해수와 전미도도 가세했다.

03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전> | 12월 1일~2012년 2월 26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02-580-1300

우크라이나 국립박물관의 스키타이 황금 유물을 만난다. 유라시아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문화의 이동경로를 통해 이 땅에서 꽃피워진 우리 문화의 뿌리를 추적하는 대장정이다. 북방 유라시아와 흑해 연안문명 유물 260점, 사진 70점, 황금문명 이동경로 영상이 전시된다.

© 한가람미술관

02 도울수록 가난해진다

<세계의 절반 구하기> | 윌리엄 R. 이스털리 지음 |

황규득 옮김 | 미지북스 펴냄

에티오피아의 한 소녀는 유칼리투스 가지와 잎을 줌기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꼬박 하루를 걷고 또 걷는다. 이 소녀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절반이 그러하다. 도울수록 가난해지는 원조의 역설, 자자는 빈곤의 종말은 정말 불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서구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02

04 세종로공원 새단장

세종로공원 개방 | 11월 12일부터 | 02-6925-0777

광화문 세종로공원이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이룬 규모의 공원이 있었다니. 여름이 오면 푸른빛 녹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특히 한글글자마당에는 1만 1,172 명의 시민들이 직접 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참여자들의 사연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Marugi/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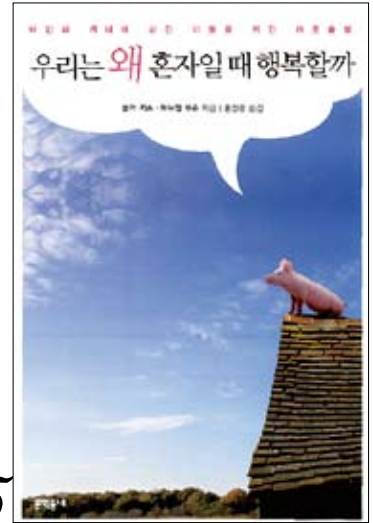
06 다시, 장한나

〈첼로로 부르는 노래: 장한나의 Songs

Without Words〉| 12월 8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577-5266

장한나가 2년 만에 돌아온다. 최근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등 지휘 프로젝트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장한나가 다시 첼리스트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것. 리사이틀 파트너 피니 콜린스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졸라를 비롯해 한국 관객이 사랑하는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05 나여서 행복해

〈우리는 왜 혼자일 때 행복할까〉 | 풀커 키츠, 마누엘 투슈 지음 | 홍성광 옮김 | 문학동네 펴냄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더니 이제는 '우리는 왜 혼자일 때 행복할까'를 묻는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독일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걸 보면 독일도 한국과 다르지 않은 모양. 독일 최고의 심리코칭전문가가 자신만의 행복을 설계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07 사랑스런 송년 선물

뮤지컬 〈애니〉 | 12월 15일~12월 29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772

뮤지컬 〈애니〉가 올해를 보내는 아듀 2011 연말 공연으로 찾아온다. 1976년 초연 이래로 수많은 상을 휩쓸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고아소년 애니가 억만장자 워벅스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희망을 담아 불러주는 'Tomorrow'. 연말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는 없다.

Cultural Calendar

1 2 월 의 재 단 소 식

12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게르니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2/1(목)~12/3(토)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02-2029-1700
무용	오픈 스페이스 앤 에블루션 2011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12/10(토)~12/11(일)	서강대 메리홀 02-705-8743
음악	스트라빈스키 음악극 〈어느 병사의 이야기〉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12/1(목)~12/2(금)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02-3274-8600
	제20회 사랑의 플룻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2-580-1300
	4개의 시선 - 시선을 깨다!	이룸센터 이룸홀	12/9(금)	이룸센터 이룸홀 02-3433-0618
	올라비올라사운드 정기연주회	금호아트홀	12/11(일)	금호아트홀 02-6303-7700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2/20(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크리스마스 이야기〉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12/22(목)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02-580-1300
전통	KOREAN BLUE BEAT, 악	KOUS 한국문화의 집	12/2(금)	KOUS 한국문화의 집 02-567-6978
	돈금없는 소리	울림푸스홀	12/2(금)	울림푸스홀 02-6255-3270
	화고 - 온고이지신	국립국악원 우면당	12/13(화)	국립국악원 우면당 02-580-3333
	안은경 피리콘서트	웰컴씨어터	12/17(토)~12/18(일)	웰컴씨어터 02-720-0749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천주미 가야금병창 창작 시리즈 II SHOW!!	남산국악당	12/18(일)	남산국악당 02-2261-0515
	박성호의 전통춤 - 紅顔	남산국악당	12/22(목)	남산국악당 02-2261-0515
	〈그 어슬프고 서툰한〉			

시각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장양희 개인전	갤러리조선	12/8(목)~12/29(목)	02-723-7133~4
	김옥선 개인전 〈No Direction Home〉	한미사진미술관	12/10(토)~1/7(토)	02-418-1315
	중력 - 기울어진 풍경	유정갤러리	12/21(수)~1/12(목)	02-514-6945
	차혜림 개인전 〈교한x로서의 세계〉	잠원동 10-2번지 3층	12/12(월)~12/26(월)	차혜림 010-9492-0924
	겨울 속 풍경	갤러리 담	12/2(금)~12/14(수)	02-738-2745
	금천 프로젝트2	아트컴퍼니 GIG	12/2(금)~12/15(목)	02-323-7395
	〈도시의 흔적〉			
	거룩한 풍경	대안공간 풀	12/8(일)~12/28(수)	02-396-4805
	Ellery Queen - the finishing stroke	갤러리 오늘월	12/9(금)~1/8(일)	070-4401-6741
	필을 우롱하다(弄筆)	갤러리 이즈	12/7(수)~12/13(화)	02-736-6669
	김명진 개인전 〈Land-escape〉	갤러리 진선	12/14(수)~12/23(금)	02-723-3340

다원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tacit.sound[0] - Structural Sounds	LIG 아트홀	12/22(목)~12/23(금)	02-6900-3900
	Pump Up The Volume	www.pumpupthevolume.co.kr	12/20(화)~1/20(금)	sseub@hotmail.com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NArt 페스티벌 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1/4(금)~12/11(일)	02-758-2150
	낭독공연 〈해청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2/30(금)	
서교예술실험센터				
기획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11/23~12/28(매주 수)	02-333-0246
	서교 동동이 세트			
	〈시민·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 일인극장〉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	11/25(금)~11/26(토)	
	서교 동동이 세트		12/16(수)~12/17(목)	
	〈시민참여 옥상극장 - 텐트 올나잇〉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 뚱뚱이 세트 〈하찌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12/2~1/20(매주 금)	02-333-0246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 뚱뚱이 세트 〈대안영상예술워크숍 나도 스마트한 뉴미디어 예술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12/3~12/25(매주 토)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 뚱뚱이 세트 〈장르 크로스오버 워크숍〉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전시장	12/6(화)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서교 뚱뚱이 세트 〈시민참여형 실험극 - 종이인간〉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전시장	12/9(금)~12/11(일)	
정기공모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프로그램 〈레인보우 보이스 스펙트럼〉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12/5(월)~12/17(토)	
대관	신당창작아케이드 〈이은원 개인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전시장	12/13(화)~12/18(일)	

금천예술공장

기획전시	금천예술공장 2011년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귀국보고전 및 결과보고 워크숍	금천예술공장 PS333	12/28(수)~1/5(목)	02-807-4121
	금천예술공장 2011년 도시문제 국제 공동 리서치 프로젝트 전시 〈局外者(국외자)가「局外者」들을 본다〉	금천예술공장 PS333	11/30(수)~12/13(화)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그램	지역연계 교육프로젝트 〈프로젝트 살림〉	신당창작아케이드	11/10~12/13(매주 화,목)	02-2232-8833
전시	입주 작가 최후회 개인전 (도자공예)	신당창작아케이드 1 전시실	11/29(화)~12/6(화)	
	입주 작가 페코마트 전시회 (디자인작품)	신당창작아케이드 1 전시실	12/7(수)~12/17(토)	
	입주 작가 유정아 개인전 (유리공예)	신당창작아케이드 2 전시실	12/1(목)~12/8(목)	
	입주 작가 신정은 개인전 (철공예)	신당창작아케이드 2 전시실	12/9(금)~12/6(화)	
	지역연계 교육프로젝트 〈프로젝트 살림〉 결과전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실	12/17(토)~12/23(금)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	서교예술실험센터	12/23(금)~1/5(목)	

연희문학창작촌

프로그램	김혜나 소설가의 〈요가와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세미나실(1동)	11/1~1/3(매주 화) 15:00~16:00	02-324-4690
	김정환 시인의 IN문학 특강 〈음악의 세계사 - 문학을 위한 온갖 인문학〉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3동)	10/19~12/21(매주 수,금) 19:00	
공연	연희문학창작촌 송년 낭독콘서트 〈Story 70's〉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3동)	12/1(목) 19:00	

문래예술공장

공연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선정예술가 결과물발표 잡비나이의 〈1집 발매기념 콘서트〉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1/27(일) 19:00(예정)	02-2676-4300
전시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선정예술가 결과물 발표 김영은의 흥간소음극 〈402호〉	문래예술공장 예술가호스텔 402호	12/1(목)~12/15(목) 시간별 1인 예약제	
영화 상영	문래동네, 씨네문	대안공간 문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2/10(토), 12/23(금) 19:00	
대관 공연	강성국의 〈Oh! Baby〉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2/1(목)~12/4(일)	010-9109-7505
	무신론자의 하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2/27(화)~12/28(수)	010-2641-3719



남산예술센터 〈오래된 아비〉



서교예술실험센터 〈텐트 올나잇〉



서교예술실험센터 〈하찌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젝트 살림〉



문래예술공장 흥간소음극 〈402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명랑방석극장>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스튜디오>



가든파인브 아이스가든



가든파인브 <두근두근 땡글섬의 비밀>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예술로 토요일>	성북예술창작센터	12/10(토) 14:00~18:00	02-943-9300
	오픈스튜디오 <예술가의 방 들여다보기>	성북예술창작센터	12/1~12/30 (매주 월,수,목,금)	
공연	겨울방학/연말 시즌 프로그램	성북예술창작센터	12/19(월)~12/30(금)	12/17(토) 15:00~19:00
	음악으로 소통해 시즌2	성북예술창작센터	12/17(토)	
영화 상영	브런치시네마, 가족시네마	성북예술창작센터	12/1~12/30(매주 수)	
전시	입주예술가 기획전시 릴레이	성북예술창작센터	12/1(화)~12/30(금) 10:00~18: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1/25(금)~12/24(토)	02-871-7400, 7415

홍은예술창작센터				
공연	춤, 열다 시즌3	홍은예술창작센터	12/9(금) 18:00	02-304-9100
전시	Invisible Architecture	홍은예술창작센터	11/15(화)~12/10(토)	
	공공미술프로젝트	홍은예술창작센터	12/12(월)~12/31(토)	
	입주예술가 기획전 <Nomap> (with 오프닝 퍼포먼스)	홍은예술창작센터	12/9(금)~12/15(목)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장애인창작스튜디오 2011 서울시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 시범사업 <스튜디오 인> 전시	장애인창작스튜디오	12/1(목)~12/16(금)	02-423-6674~5

문화나눔 행복서울				
문화사업	문화나눔 행복서울 감사의 밤	남산예술센터	12/29(목) 18:00~21:00	02-3290-7142
시상식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우수 도서관 및 독서가족 시상식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12/22(목) 16:00	
	서울거리아티스트 우수활동 아티스트 시상식 및 제4회 온라인사진공모전	남산예술센터	12/28(수) 18:30	
	시상식, 연말 종합페스티벌			

가든파인브 <문화숏프로젝트>				
프로그램	아이스가든 (아이스링크)	가든파인브 중앙광장	12/9(금)~2/12(일)	02-2157-8770
전시	<어린이 특별전시> 두근두근 땡글섬의 비밀 가든파인브 스프링플라자(B1)		12/1(목)~1/15(일)	
체험	만드는 가드너 <가구 DIY 만들기>	가든파인브 9층 전시장 (아띠북카페)	12/10(토) 14:00, 16:00	02-2157-8771
	가든아트마켓	가든파인브 스프링플라자(B1)	12/10(토) 13:00, 18:00	
	아띠북카페 동화구연	가든파인브 9층 전시장 (아띠북카페)	12/4(일), 12/18(일) 14:00	
강연	문화숏 브런치강연 <프로젝트그룹 옆>	가든파인브 패션관 11층 회의실	12/7(수) 11:00	02-2157-1140
공연	어린이 드로잉 쇼	가든파인브 아트홀(10층 CGV내)	12/3(토)~12/4(일) 14:00, 17:00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가든파인브 아트홀(10층 CGV내)	12/10(토)~12/16(금) 화~금 15:00 토~일 14:00, 16:00	
	크리스마스 패밀리 콘서트	가든파인브 아트홀(10층 CGV내)	12/23(금)~12/25(일) 금 20:00 토~일 14:00, 17:00	

S F A C N e w s

12월의 재단 소식

12



금천예술공장 <局外者(국외자)가 '局外者'들을 본다>

금천예술공장 도시문제 리서치 전시

局外者(국외자)가 '局外者'들을 본다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시문제 리서치 전시 <局外者(국외자)가 '局外者'들을 본다>를 개최한다. 5개국 여덟 팀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 전시는 금천예술공장 해외교류기관을 통해 입주한 엠지 프링고토노(인도네시아), 줄리아 사리세티아티(인도네시아), 카주야 타카가와(일본), 알렉스 마르티니스 로어(호주), 애쉬 키팅(호주), 비센테 바즈케즈(스페인)와 3기 입주예술가 임흥순, 리슨투더시티가 참여한다.

금천예술공장 도시문제 리서치 프로젝트는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에 3~4개월간 초청된 호주,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의 예술가들이 이방인의 시선에서 '서울'과 '한국'이라는 도시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독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러 작업들은 서울을 바라보는 예술가만의 새로운 꿈, 다양한 시각, 가능성을 은유하고 있다. 참여 예술가는 '도시의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이주노동자의 생존문제' '한국과 노동운동 연구' 등 각자의 주제에 맞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를 구성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일시	11/30(수)~12/13(화)
장소	금천예술공장 PS333
문의	02-807-4800

신당창작아케이드 주부 대상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 살림>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11년 가을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 주부 대상 도자공예 예술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살림>을 진행한다. 5주간 매주 1~2회 동안 신당창작아케이드 공방에서 입주 작가인 이진희, 석승현 도자작가와 함께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테이블 웨어 세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주부들이 직접 도자공예 체험을 통해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말에 결과물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일시	11/10(목)~12/15(목)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문의	02-2232-8833

신당창작아케이드 주부 대상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 살림> 결과전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지난 11월부터 5주간 진행되었던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 살림> 결과 전시를 개최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젝트 살림>은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예술가와 인근 지역 주부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진행된 예술 나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그램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도예작가인 이진희 작가, 석승현 작가가 각각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섭외된 주부들과 '도자 테이블 웨어 세트' 제작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5주간의 프로그램 완료 후 나온 결과물 전시는 12월 17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일시	12/17(토)~12/23(금)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실
문의	02-2232-8833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가의 방, 들여다 보기>



문래예술공장 이인수의 신작 <벽>

공예 중심 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단체 기획전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주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개최한다. 공예 중심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단체 기획전이다. 이번 단체전에는 공예 각 분야 작가 및 기타 관련 분야인 디자인, 기획 분야 작가가 참여한다. 흥대 앞 문화지원센터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재래시장 지하 속 예술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의 작품을 지상 전시공간에서 선보여 관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시	12/23(금)~2012/1/5(목)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의	신당창작아케이드 02-2232-8833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연희문학창작촌 송년 낭독 콘서트

Story 70's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은 12월 1일 저녁 7시, 문학미디어랩에서 송년 낭독 콘서트 <Story 70's>를 갖는다. 1970년대에 태어난 세 작가, 한 차헌 소설가(1970년생), 김도연 소설가(1972년생), 유형진 시인(1974년생)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며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 작가는 올해 신간을 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비슷하거나 또 다른 삶의 흔적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 자신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고전적인 서사의 안정감과 신세대다운 위트를 이색적으로 조화시켰다는 평을 받으면서 평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한차헌 소설가의 <사랑, 그 녀석>,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 욕망을 추적

해운 중견소설가 김도연의 신작 <꺼져라, 비둘기>, 동화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유형진 시인의 신작 <가벼운 마음의 소유자들> 등 세 편의 작품과 함께한다. 초대작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들만의 작품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문래동 영화여행

문래동네, 씨네문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에서는 문래창작촌 예술가 나태홍(블로그 문)의 기획으로 지난 5월부터 정기 독립영화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래 예술공장의 MEET 프로젝트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래동네, 씨네문>은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대안공간 문에서, 넷째 주 금요일에는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되며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상영영화를 포함한 정보는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www.blogmoon.co.kr 또는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www.seoulartspace.or.kr에 게재된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참가 신청은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으로 하면 된다.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충간소음극 <402호>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관객 1인만을 위한 전시를 연다. 문래예술공장에 장기간 머문 MAP 2기 김영은 작가의 은밀한 충간소음극 <402호> 작업이 공개된다. 이 작업은 "특정 공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수단인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물리적이고 음향공학적인 관점에서만 공간 내부의 소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주로 예술가들이 머물다 가는 장소(예술가 호스텔)가 가진 비가시적인 이야기를 음향극으로 전환하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로 토요일>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명랑방석극장>

는 더 큰 의미를 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문래예술공장(02-2676-4332)로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저녁 8시, 9시, 10시, 11시 각 시간대별 1인 관객 예약을 받고 있으며, 11시 예약시 예술가 호스텔에서 1박이 가능하다.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이인수의 신작 <벽>

문래예술공장 MAP 2기 예술가에 선정된 이인수 춤꾼의 신작 <벽>은 그동안 15~25분 내외의 비교적 짧은 호흡을 가진 작품을 선보여온 것과 달리 장시간의 구조화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팝, 영화음악, 클래식 등을 사용한 서사적 스타일의 무브먼트 드라마다.

가요, 디스코 음악을 바탕으로 정통합창의 움직임과 스타일, 현대 마임과 현대 무용을 접목시켰다. 12월 9일과 10일 총 2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관람 예약은 문래예술공장(02-2676-4300)으로 하면 된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오픈스튜디오

예술가의 방, 들여다보기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현재 2기 입주예술가 여덟 팀이 입주하여 본인의 창작활동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예술가만의 전문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2기 입주예술가의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한다. 이번 성북예술창작센터 2기 입주예술가 오픈스튜디오 <예술가의 방, 들여다보기>는 기존의 오픈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시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예술가가 직접적인 소통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9/19~12/23 (월, 수, 목, 금 14:00~17:00)
참여예술가	커뮤니티 아트 가난뱅이모임, 극단마실, 금선희, 프락시스, 최영환, 정원연
예술치료	아트만 미술치료, 숙명음악치료연구회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문의	02-943-9300

성북예술창작센터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예술로 토요일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월 1회 가족 대상의 놀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0월부터 진행된 <예술로 토요일>은 매월 1회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부문의 예술가들이 단순한 창작 기법 교육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색다른 예술체험교육을 선보인다. 매회 목공, 수집, 요리, 미술창작, 연극놀이 등 진행 예술가에 따라 서로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자녀의 체험활동을 위해 동행하는 부모님, 정작 놀토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중고등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카페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일시	12/10(토) 14:00~18:00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홍은예술창작센터 <노맵>



홍은예술창작센터 공공미술프로젝트



〈관악영랑방석극장〉에서 상연되는 모든 작품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극단의 우수한 작품들이다. 전통상례에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용된 오브제 ‘꼭두’를 극의 캐릭터로 형상화한 전통문화체험연극 〈꼭두, 하늘을 날다〉를 시작으로 하여 총 여섯 편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관람 가능한 어린이의 연령은 6세부터 10세까지이며, 회당 관람인원은 90명이다.

11/25(금)	16:00	꼭두, 하늘을 날다!	단체관람
11/26(토)	14:00, 17:00	꼭두, 하늘을 날다!	개인관람
11/29(화)	11:00, 16:00	놀이터에서 만난 금관악기	개인관람
11/30(수)	11:00	놀이터에서 만난 금관악기	단체관람
12/2(금)	16:00	옛날 옛날 금강산에	단체관람
12/3(토)	14:00, 17:00	옛날 옛날 금강산에	개인관람
12/9(금)	16:00	회회락락 이야기보따리	단체관람
12/10(토)	14:00, 17:00	회회락락 이야기보따리	개인관람
12/16(금)	16:00	우당통탕 49분	단체관람
12/17(토)	14:00, 17:00	우당통탕 49분	개인관람
12/23(금)	14:30	거인의 책상	단체관람
12/24(토)	14:00, 17:00	거인의 책상	개인관람

홍은예술창작센터 시각분야 입주예술가 기획전

노맵(Nomap)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각예술분야 작가들이 2011년 입주기간 동안의 창작성과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짧은 기간마다 새로운 스튜디오를 찾아 헤매야 하는 작가들의 삶의 모습을 주제로 하며, 여섯 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센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2층 야외 테라스에서 선보일 한승구의 'Mirror Mask'를 비롯하여 입주예술가들의 작업적 고뇌를 담은 협업 설치작업 'Artist Fear'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디자인팀 고운시은의 조명작품이 전시되며, 차혜림의 회화작품은 물론 11월부터 전시를 시작한 박

재환의 'Invisible Architecture'도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전시 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무용분야 입주예술가인 주정민이 준비한 무용공연 '102호에 살고 있는 102호 남자'가 전시 관람객들의 흥미를 북돋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12/9(금)~12/15(목) 오프닝 17:00, 축하공연 18:00(예정)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문의	02-304-9100

홍은예술창작센터 공공미술프로젝트

〈나의 이야기〉〈버스를 기다리며〉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국제레지던스 초청예술가 로슬리샴 이스마일(Roslisham Ismail, 말레이시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0여 명과 함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센터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벽면에 전시될 콜라주 작업 〈나의 이야기〉는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잡지 속 이미지를 선택한 후 손으로 찢어 붙여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다. 어린이들의 1차 작업이 끝나면 2차로 이스마일이 콜라주 작업 위에 드로잉 또는 색을 덧입혀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전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야외 버스정류장에서도 또 하나의 전시 〈버스를 기다리며〉가 진행된다. 이 작품은 무용분야 입주예술가인 이종승과 함께 진행하는 작업으로 이스마일이 자아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로봇 여러 개를 만드는 과정에 이종승이 개입하여 로봇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춤을 창작한다. 총 2~3회 동안 창작한 춤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 12월 9일부터 세미나실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일시	12/9(금)~12/31(토) 10:00~18:00,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문의	02-304-9100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스튜디오 人>



12월 대학로연극투어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서울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시범사업

스튜디오 人

서울시창작공간 장애인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스튜디오 人>을 진행하였다. <스튜디오 人>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 바깥으로 옮겨 학생들이 보다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8회에 걸쳐 상계고등학교, 문정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경수중학교 등 일곱 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총 200명의 학생들이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와 함께 서각체험, 타일화 제작 등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았던 다양한 미술활동 및 장애체험을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스튜디오 人>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북으로 제작되어 학생들의 작품과 함께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운영사무실(02-423-6674~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창작스튜디오의 새 얼굴

5기 입주작가 선정

장애인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공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입주예술가들은 11월에 입주하여 2012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을 펼쳐나간다. 5기 선정작가로는 서각 1명, 한국화 3명, 서양화 5명, 조소 1명, 미디어(일러스트, 컴퓨터그래픽, 사진) 3명, 기타 복합장르 1명으로 총 14명이다. 앞으로 이들이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펼쳐갈 작업이 기대된다.

연극 속으로의 특별한 체험

12월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12월 11일(일)과 12월 18일(일) 오후 12시 30분 총 2회의 대학로연극투어를 운영한다. 대학로연극투어는 대학로 속 일일사색(一日四色) 만남을 통하여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학로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로의 로비 '서울 연극 센터'에서의 설레는 첫 만남 후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스테이지투어'를 통해 극장 뒤 숨은 그곳을 직접 둘러보며, 연극배우에게 듣는 대학로와 연극이야기 '배우와의 만남',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연극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1인 1만 원이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www.daehangn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43-9333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대학로연습실 대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연습실은 총 여섯 개의 연습실과 한 개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실 대관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운영되며 정기대관 신청접수는 홀수 달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세미나실은 수시대관으로 운영되며 사용일 전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대관시설 및 대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또는 대학로연습실(02-747-7805)로 문의하면 된다.

연말 시상식과 초청공연

문화나눔 행복서울 감사의 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여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열린다. 우수활동 재능나눔 봉사단, 문



가든파이버 아이스가든



가든파이버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



가든파이버 타임벽화 전시

화나들이 자원봉사단이 그들이다. 재능나눔 홍보대사 초청공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행사다.

일시	12/23(목) 18:00~21:00
장소	남산예술센터
문의	02-3290-7142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겨울 프로그램

아이스가든

아이스가든은 문화술프로젝트의 겨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아이스링크다. 아이스가든이 조성된 가든파이버 중앙광장은 직경 약 100m 크기의 타원형 구조로, 시청광장 만한 크기를 자랑한다. 76m 상공에서 광장을 감싸는 스카이라이프가 미국적 정취와 위용을 뽐내고 스카이라이프와 글라스홀에서 쏟아지는 LED 조명이 광장 전체를 로맨틱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가든파이버만의 명소이기도 하다. 아이스가든의 링크 크기는 가로 38m, 세로 23m 규모이며, 1회 최대 수용인원은 350~400명이다. 쇼핑몰 안의 아이스링크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쇼핑을 즐기면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즐거움까지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는 문화술프로젝트의 겨울 대표 프로그램이다.

일시	12/9(금)~2/12(일) (평일 10:00~20:50 / 주말 10:00~22:00)
장소	가든파이버 중앙광장
티켓가격	소인(4세~중·고생) 1,000원 / 대인 2,000원 / 대화료 별도 1,000원
문의	02-2157-8770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어린이특별전시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어린이특별전시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체험전시이다. 미술작품

감상과 놀이, 체험이 결합된 전시 프로그램으로, 참여 아티스트들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놀이터에서 아이들의 CQ를 높여줄 예정이다. 상상의 공간을 여행하면서 미션도 수행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예술체험놀이로 승화시켜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일시	12/1(목)~2012/1/15(일) 10:00~20:00
장소	가든파이버 스프링플라자(B1)
티켓가격	무료
문의	02-2157-8771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만드는 가드너

가구 DIY

문화이해지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어릴 때부터 하는 미술체험교육이다. 아동기의 체험이 아이에게 평생자산을 만들어준다. 기획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수준 높은 어린이 미술수업은 엄마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매 체험수업이 조기 신청마감 되는가 하면, 본래 성인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만드는 가드너 프로그램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자녀와 부모가 함께 똑딱똑딱 만들고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변모하였다. 주말이면 자녀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매시간 열리는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인다. 만드는 가드너 <가구 DIY>는 가족 단위 체험객에게 직접 가구를 만들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를 통해 하면 된다.

일시	12/10(토) 14:00, 16:00
장소	가든파이버 9층 전시장(아띠북카페)
티켓가격	무료
문의	02-2157-8771



가든파이프 〈가구 DIY〉



가든파이프 〈어린이 드로잉 쇼〉



가든파이프 〈크리스마스 패밀리 콘서트〉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상설전시

타일벽화 전시

타일벽화 전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문화술프로젝트의 타일그림 그리기 수업에서 그린 타일그림으로 꾸민 전시다.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그린 타일을 모아 벽화로 장식하는 타일벽화 전시에는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어린이들이 그렸을 천진난만한 그림부터 제법 솜씨를 낸 그림까지 약 1,400개의 타일이 가든파이프 내부 한쪽 벽면을 장식한다.

일시	상설
장소	가든파이프 라이프-웍스 연결통로
티켓가격	무료
문의	02-2157-8771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공연

어린이 드로잉 쇼

캔버스 밖으로 나와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미술을 만난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라이브 드로잉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만들어지는 열 개의 작품은 새롭고 다양한 감성으로 어린이의 감성지수를 높여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할 것이다. 신비한 그림콘서트에서 미술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법으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2/3(토)~12/4(일) 14:00, 17:00
장소	가든파이프 아트홀(10층 CGV내)
티켓가격	1만 원
문의	02-2157-1140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교육극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온 가족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음악이 있다. 직접 연주하며 들을 수 있는 여러 음색의 악기, 아이들의 웃음과 부모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오감만족 음악 교육극이다.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는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고, 눈앞에 있는 악기를 직접 연주해봄으로써 악기마다의 음색을 경험한다. 눈과 귀가 즐거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읽기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더욱 친근하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림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의 고마움, 따뜻한 감성을 키워줄 것이다.

일시	12/10~12/16 (화~금 15:00 / 토~일 14:00, 16:00)
장소	가든파이프 아트홀(10층 CGV내)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문의	02-2157-1140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콘서트

크리스마스 패밀리 콘서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0여 가지의 풍성한 타악기가 선사하는 곡들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공연이다. 연주자와 관객들이 하나가 되고 관객석과 무대를 넘나들며 연주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패밀리 콘서트〉는 가족과 보내는 크리스마스의 밤을 행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온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일 단 하나의 가족콘서트다.

일시	12/23~12/25 (금 20:00 / 토~일 14:00, 17:00)
장소	가든파이프 아트홀(10층 CGV내)
티켓가격	1만 5천 원
문의	02-2157-1140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김미경



● 성북예술창작센터 〈월요일N 하늘공방〉 참가자

김미경

월요일 오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월요일N 하늘공방〉에 참여하기 위해 성북 예술창작센터를 찾았다는 김미경 씨.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평소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단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어떻게 알게 됐나?

종암동에 살다 보니 오가며 플래카드를 봤다. 평소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곳에서도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월요일N 하늘공방〉에 참여한 소감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흥미로웠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두고두고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저녁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주부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자주 찾는 이유는?

입주 작가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즐겨 찾는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 편안하고 좋다. 초등학교생인 둘째와 셋째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부터 이곳을 무척 좋아하게 됐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성북예술창작센터를 광고하고 다닐 정도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나.

중학생인 첫째 아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요즘 아이들에게 예술을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한다. 일요일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김은희

●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젝트 살림> 참가자

김은희

작업시간 내내 조용히 흠을 빚는 모습이 단아하고 진지하다. 황학동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은희 씨는 누구보다 먼저 작품을 완성하고 화장토 바르는 작업까지 끝마치고는 오래도록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즐기는 모습이다. 그녀가 남은 아홉 번의 강좌를 통해 완성해갈 행복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살림>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됐나?

예쁜 도자기 그릇을 자주 구경하러 다니는 편인데 딱 마음에 드는 걸 찾기 어려웠다. 자신은 없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던 차에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집에서 가깝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단체로 참가한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어떤 작품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나?

내가 생각한 건 손잡이가 없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물컵이었다. 중간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통형 컵이 됐다. 처음 생각했던 작품은 물레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다.(웃음) 이래서 초보인가 보다. 본 건 있어서 무조건 물레도 돌리고 매끈한 도자기 하나 만들어낼 줄 알았다.

어렵진 않았나?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 단씩 말아 올리면서 붙이고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간다는 게 맘처럼 안 되더라. 갈수록 컵이 넓어져서 애를 먹었다. 두 번째 작품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작품을 완성한 소감은?

아주 마음에 든다.(웃음)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첫 작품이니까, 아주 각별하고 친근한 느낌이다. 만드는 과정도 재밌었다.

● 연극 <해무> 관람객

권동아, 박은영

친자매처럼 닮은 권동아, 박은영 씨는 아나나 다를까 15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언니 동생 사이이고, 평소 연극을 좋아해서 대학로를 즐겨 찾는다는 그들의 얼굴에는 채 가지지 않은 <해무>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연극 <해무>를 보게 된 계기는?

은영 언니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데, 교수님이 추천하셨다며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송새벽 씨가 출연한다는 얘기에 흔쾌히 따라나섰다. 예전부터 송새벽 씨 팬이다.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인상 깊다. 송새벽 씨를 비롯해 출연배우들 모두 연기를 잘하고 발성도 좋아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다. 연극을 보고 나니 제목도 인상 깊다. 작품을 통해 '해무'가 바다에 끼는 안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아쉬운 점은 없었나?

명확한 답 없이 갑자기 연극이 끝나서 좀 허무했다. 예상치 못한 결말이라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극을 본 소감은?

사실 잘 모르는 작품이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밌었다. 슬픈 대목에서는 배우를 따라 울었을 정도로 공연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몰랐다. 보는 내내 송새벽 씨의 연기에 연신 감탄했고,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내용에 감동했다.



권동아, 박은영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씨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고 다양한 공연 정보도 유익했습니다. 한옥에서 사는 게 제 꿈인데, 점점 사라져가는 한옥을 외국인인 지켜주고 있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어 좋았습니다. 책에 공연을 좀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할인쿠폰이 담겨있으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운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알찬 정보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만, 「문화+서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 부분입니다. 특히 11월호에서는 '문화+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알찬 내용 덕분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항상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반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칼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숙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 아티스트」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젊은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는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능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문화+서울」이라는 제호처럼 서울 내 문화소식을 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도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상철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같은 성북구에 살고 있어서인지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씨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옥에서 살았었는데, 동네에서 보기 드문 집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가 재개발되어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때때로 예전 한옥과 장독대가 무척이나 그리웁습니다. '나의 서울생활기'를 읽으면서도 예전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유선영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총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송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상명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ιβ



201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안내

"우수예술작품을 서울시민의 생활 속으로"



1 신청사업



시민문화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전문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정기공모 이외의 지원사업 일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2012년 서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각 지원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

3

신청기간 | 2011.11.25(금) ~ 12.15(목) 17:00까지

4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sfac.artskorea.or.kr



문의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0~8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